

백제역사 유산도시(공주·부여등) 의 세계화 육성방안

이 인 배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수석연구위원
iblee@cni.re.kr

본 연구는 2015년 7월 공주·부여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역사문화를 활용한 세계적 문화관광 유산도시로서 육성방안을 모색코자함. 이에 백제역사유산도시로서 문화관광여건분석을 통한 발전과제 도출과 백제역사 유산도시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안하였음.

CONTENTS

1.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2. 국내외 세계유산 국제화 사례
3. 백제역사유산도시 지정현황과 여건분석 및 발전과제
4. 백제역사 유산도시 세계화 육성방안

요약

- 세계유산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보유하면서 최근에 유산관광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변모하면서 세계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는 유산관광이 세계유산지역의 관광기반을 갖춘 역사도시로서 인근 지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임.
- 세계문화유산의 활용 사례지역으로 일본, 라오스, 중국, 베트남, 한국 등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5곳의 문화유산을 살펴본 결과,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시책과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관광명소화 및 관광서비스와 홍보마케팅, 주민관광교육, 전통생활, 콘텐츠의 다양성과 지역 콘텐츠 연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음.
- 공주·부여 유산도시의 세계화를 위한 여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세계문화유산의 브랜드화와 관광명소성 강화, 편리한 관광기반 구축과 서비스제공, 시·군지역간 공동협력시스템 구축, 지역관광 업체간 협력과 참여형 관광사업 추진 등의 과제가 도출되었음.
- 이에 백제역사 유산도시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은 공주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과 네트워크 포럼 개최, 부여군 세계 역사도시연맹 세계 총회 및 세계유산도시지구 총회 유치 개최, 공주·부여 도심과 관광지내 관광기반시설 확충, 서부내륙권 관광단지사업 추진을 통한 관광도시로 성장발전, 공주·부여와 세종 등 광역시티투어와 철도여행상품의 발굴 및 운영사업 추진,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권 통합관광패스 라인 구축과 운영 등임.

1. 세계유산의 개념과 선정기준

1) 세계유산의 지정목적과 개념

- 세계유산(World Heritage)과 같은 지역을 보호하자는 생각은 19세기부터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20세기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인류역사 최초로 세계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은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복구캠페인이다. 유네스코는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라는 개념아래 1960년대에 아스완 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이집트 누비아 유적을 복구했다. 이 캠페인은 누비아 유적과 같이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등 당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 세계유산이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인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등록 제도에 의해 세계유산 협약을 근거로 협약 가입국의 유산 중에서 현저한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록하고 있다.
-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문화유산에는 유적, 건축물, 장소가 포함되며, 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 형

태, 자연학적, 지문학적 생성물 및 동식물, 자연지역 등을 자연유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문화유산이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등록할 유산을 복합유산이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분류표에 의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에 해당된다.

세계유산의 분류

유 형	분 류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물(monuments): 건축물, 기념 조각 및 그림,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동굴 등 역사,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건축물(groups of buildings): 독립되었거나 이어져있는 구조물로 역사, 예술,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유적지(sites): 인공물 혹은 자연과 인공의 결합물, 역사적, 미학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고학적 지역을 포함한 지역
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이고 생물적인 형성 혹은 그러한 형성에 의해 그룹을 형성하는 자연물(natural features)로 미학,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질학적이고 지형적인 형성물(geological and physiographical formations)과 위험에 처한 생물과 식물의 종의 서식지를 형성하는 지역임을 설명할 수 있는 곳으로 과학적 혹은 보존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자연 지역(natural sites) 혹은 과학적, 보존적 관점 혹은 자연미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지역
복합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2)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기준 및 효과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유산 지역내 소재한 박물관에 보관한 조각상, 공예품, 회화 등 동산 문화재나 식물, 동물 등은 세계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에 해당되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치평가기준 이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구분	기 준		사 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 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 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 · 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 · 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 · 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 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www.unesco.or.kr/heritage/>

- 세계유산은 최고의 브랜드 자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고객들에게는 잠재적인 매력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세계유산에 등록에 따른 브랜드 가치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제휴와 증명을 통하여 관광목적지 혹은 관광지의 브랜드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세계유산은 그 자체가 매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에게는 자석과 같이 작용하고 방문객 방문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게 된다(2015, 이서현).

2. 세계유산의 관광 활용가치

1) 관광유산으로서의 활용

- 최근 유산관광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유산관광이 세계유산지역 내의 숙박, 쇼핑, 레스토랑, 각종 오락시설은 물론 인근 관광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산지역과 주변지역 및 국가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세계유산의 활용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관광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유산의 활용에 대한 연구, 세계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에 주목한 연구, 지속가능한 관광 도모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에 관한 연구,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세계유산 브랜드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 첫째, 관광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경제적 효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가 관광산업의 발달과 관광수입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착안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유산자원의 속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관광자원화에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세계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ecotourism)에 주목한 연구들은 세계유산이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을 견인하고, 지역사회와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다목적 지역활성화 전략’에 주목한다.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 도모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유산 보존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에 관한 연구들은 세계유산지역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효과적인 관리전략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자연유산을 관광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정책추진 및 발전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넷째, 세계유산의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은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세계유산 인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광활동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들은 세계유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유산 등재제도의 취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다섯째, 세계유산 심벌에 관한 연구들은 세계유산 엠블럼과 유네스코 로고가 해당지역이 세계유산지역임을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이서현, 2015)

2) 세계문화유산의 관광유산으로서의 활용

- 세계관광시장에서 세계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유산관광은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성장세가 가장 높은 관광상품이며, 특히 후진국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빈곤타파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유산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 유산관광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유산의 인지도 향상 뿐 아니라 국제관광객의 대폭적인 유입을 촉발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가능하다면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종교목적의 순례여행, 학술답사, 광고제작 등과 함께 세계유산의 가치훼손과 연결, 유네스코, 세계관광기구 등은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관광으로 인한 유산의 지속적인 가치 유지를 위해 엄격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 세계문화유산의 관광가치의 급증은 다양한 문화 및 교육콘텐츠를 발전시켰다. 즉, 유산해설서, CD, 화보집, 비디오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제작·보급되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상징 21에서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 세계문화유산은 해당 민족과 국가의 절대적 상징과 아이콘임에 틀림 없으며 교육, 관광, 홍보, 여가 등의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출판, 광고, 디자인 등 일부 한정된 영역에서의 상품개발이 주가 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문화정책과 IT기술능력과 문화소비층의 취향에 따라 개발 가능한 문화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념물과 사적들은 국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 명소로 부각된 세계문화유산은 국가의 상징일 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주 수입원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의 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사건, 기념물을 대외적으로 국가를 홍보하고 대내적으로 다양한 사회세력을 결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허권, 2010)

3. 세계문화유산의 지역관광과 연계 필요성과 구성요소

1) 세계문화유산의 관광 연계 필요성

- 관광재에서 상품화는 관광지와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 그리고 이러한 관광상품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관광수요자가 갖는 필요와 욕구를 조사·분석하여 관광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라 정의하고 있다.
- 관광상품화를 관광객들의 방문을 전제로 인공 및 문화, 자연자원 및 관광관련 자원 예를들어 기념품, 음식 등을 관광객들이 소비하도록 관광시설이나 인프라 등을 조합하여 구성하여 매력성을 높이는 제 활동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문화유산 관광상품화'를 보존·보호하지 않으면 소멸 또는 가치가 상실될 수 있는 문화유산자원을 관광관련 자원 즉 해설, 숙박, 기념품, 음식, 시설 인프라 등과 결합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 이상의 관광상품 및 상품화의 개념을 참조하여 '세계문화유산 상품화'를 개념화하면 현세대의 이용과 후대를 위한 보전을 바탕으로 세계문화유산의 관람 및 해설과 교육, 관광객 이용편의 및 매력성을 높이도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관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이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와 활용을 위해서는 앞의 규정과 같이 관광객들의 이용편의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관광기반의 조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
- 특히, 세계문화유산관광은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나 유산이 자원으로 활용될 때 그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 세계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세계문화유산의 관광적 가치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관광자원의 제공과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물질문명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점차 대중 속에 고립화되는 현대인이 인간성 회복과 정신적 가치, 진리의 추구를 위한 현대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시장세분화의 지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제안하였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관광을 통해 보전적, 교육적, 생산적 활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영진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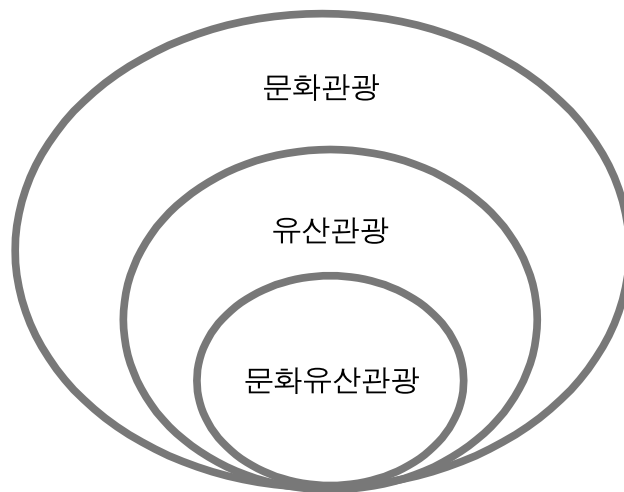
2) 문화유산 관광의 개념과 속성

- 문화관광이란 지역의 자연적 또는 문화적 경관지역의 볼거리 대상, 사람, 이벤트,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방문객의 거주지로부터 목적지인 관광지로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역사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관광이다. 문화관광은 역사문화기행, 영화, 축제, 이벤트, 미술관 관광 등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을 문화관광이라 한다.
- 문화유산관광은 현대인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별 관심관광(SIT : Special Interest Tourism)의 한 유형으로 각광 받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산관광은 유산의 종류에 따라서 규명하고 있으며, 크게 문화관광에 포함되고 문화유산관

광은 유산관광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 문화유산관광이 탈근대적인 신개념의 관광형태라는 점에서 문화유산관광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과거의 것을 관광자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다시 관광상품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관광의 개념도



자료 : 김지선·이훈(2009), 문화유산관광으로서 고궁관광평가, 관광·레저연구, 22(5).

- 문화유산관광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과 역사유적 등의 유산으로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과거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역사유적을 찾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유산관광은 계절이나 공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관광을 확대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관광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동시에 관광방문객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유산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다(왕퇴, 2013)고 말하고 있다.
- 문화유산관광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한 것으로서 문화유산 보존에 이바지하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주며 방문객들에게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및 매력을 경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지선·이훈, 2009). 이러한 문화유산관광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이정아, 2014) 분류되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의 유형

유형	특 징	사 례
문화유적관광	유·무형의 문화적 유적을 관광하면서 민속의 우수성과 민족의 자긍심 회복	왕릉, 고궁, 매장문화재, 민속자료
민속예술관광	타민족과 다른 민족 예술적 성격 특화	종묘제례악, 하회별신굿, 무당춤, 전통축제
역사교육관광	특정 분야에 대한 배움의 욕구 충족	유교, 불교문화연구, 풍수지리연구
전통생활체험 관광	타민족과 다른 전통적 생활 재현을 체험	전통민속마을 관광
종교, 성지순례	종교발생지, 순교지, 종교적인 의의가 깊은 곳 순례	종교발생지, 종교박해현장, 순교지

자료 : 전명숙(2005),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 경주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6(1).

- 문화유산관광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유적 또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일반관광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황병춘, 2008). 문화유산관광지와 일반관광지가 다르게 갖고 있는 매력 중 하나는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역사성과 공간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소성, 내용적으로 유산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한국관광공사,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08) 자원의 활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유산관광의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Garrod & Fyall(2000)은 유산관광자원의 매력요소로 보존(Conservation), 접근성(Accessibility), 교육성(Education), 관련성(Relevance), 오락성(Recreation), 재정(Financial),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품질(Quality) 등 8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이정아, 2014).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매력요소를 고려한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유산관광자원의 매력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보존 (Conservation)	유산관리자의 역할은 후대를 위해 유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세대가 전체 국가를 위해 보존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 세대에 맞게 너무 개량을 하는 행위는 지양하여야함.
접근성 (Accessibility)	유산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함. 유산을 경험하고자 하는데, 접근성 저해를 받는다면 유산이 한 부분으로 더 이상 인식할 수 없음. 그러나, 접근성이 너무 좋으면 유산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 보호를 위해 가능한 유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반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함.
교육성 (Education)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반 교육이 필요함. 방문객들은 소중한 유산을 보유하는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지, 보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교육 형태로 전달받는 것이 필요함
관련성 (Relevance)	유산 매력에 인식하고 유산을 좋아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함. 유산 매력성은 지역사회 공동체에게 유산이 보존된 장소와 이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감을 고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오락성 (Recreation)	유산 매력도의 일부분으로서 방문객들에게 오락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 하면, 방문객이 유산을 방문 했을 때 적절한 오락성을 향유함으로써, 향후 제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생성해 줌
재정 (Financial)	유산을 보호 유지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건전성이 필요함. 재정적인 건전성은 입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유산 보호 유지를 위한 외부의 재정도움이 필수임.
지역공동체 (Local Community)	유산 매력성은 공동체와 조화가 필요함.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비용만으로 충당해서는 안 됨.
품질 (Quality)	다양한 다른 관광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산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고품질의 서비스는 다양한 취락시설, 유연성, 잘 훈련된 스템들, 그리고 고객 수에 맞는 주차시설 등, 입장료를 받는 유산이라면 고객의 기대수준을 능가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자료 : 이정아(2014), 문화유산관광지 체험마케팅이 방문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3) 세계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 구성요소

- 관광상품의 구성요소는 관광목적지 매력요소(문화 및 자연자원 등), 숙박 및 편의 시설, 인적 서비스 관광환경, 접근성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관광상품화의 매력성은 문화유산의 대중성, 개발 요소, 관광상품화 요소, 문화유산관광 추진 요소, 지속가능한 매력요소 등으로 연구되었다.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 관련 가능성 분석틀

1 수준	2수준	3수준	체크리스트
매력성 관점	<div>세계문화유산 자체 속성 (유산성)</div> <div>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매력성 (매력성)</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성 •진정성 •역사성 •종교성 •예술성 •지역성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드화 가능성 •체험성 •교육성 •해설성 •휴양/오락/흥미성 •보전성 •내용성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및 매력성 •문화유산 재현 •시대적 생활상 관람 및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적 프로그램 운영 </div>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관점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및 정보 제공 •홍보마케팅 •관광인프라와 수용태세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정보 제공 □홍보 및 상품화 □관광 및 편의, 안내시설 •홈페이지 유무 •홍보경로, 여행사 연계 상품, 지자체 제공코스 •화장실수와 청결성, 주차시설수와 유산까지 거리, 휴게시설, 음수대 •기념품/식음료판매점 •관광안내소 •안내지도/브로슈어 </div>
주변 연계성 관점	<div>주변관광지 및 시설과의 연계성</div> <div>세계문화유산의 대중성</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관광지 연계성 •주변시설 연계성 •홍보 및 안내 연계성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 •해설의 대중성 •대량관광객 수용가능성 •세계적 인지도 •인지 용이성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성 □세계문화유산 인지 □접근성 •교통편, 거점교통지에서 유산까지 이동방법, 교통정보 등 •주변관광지, 주변시설 연계성 •세계문화유산인지 구분 가능여부 </div>
지속가능성 관점	<div>보존성/장래성</div> <div>경제성</div> <div>관리시스템</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성/포괄성 •보존성 •재정의 건실성 •지역경제 기여도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및 모니터링시스템 •통합관리네트워킹 •문화유산해설 종사원 교육 또는 메뉴얼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해설 □문화유산보호 □관광객 행동분석 •해설도구, 해설사여부, 해설사교육, 해설의 대중성, 해설의 전통문화 반영, 해설사의 특이행동 •관광객 인원제한, 관광객을 위한 문화유산 보호관련 교육, 휴식년제 •이동동선 형성요인, 관광객의 관심, 경관감상, 휴식활동, 민속행사참가, 특이한 경험 </div>

자료 : 이영진 외(2011),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고인들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분석, 상품학연구 제29권 2호(2011년 3월)

- 이러한 연구를 정리해보면, 관광상품의 구성요소는 매력성,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주변 연계성의 관점에서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관광상품화 매력성에는 매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관광상품화 평가 측면에서는 매력성, 인프라 및 수용태세, 지속 가능성 요인의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종합한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매력성 관점',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관점', '주변 연계성 관점', '지속가능성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영진 외, 2011)
- 이상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이 관광상품화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매력성을 갖추고, 방문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를 구축하여 주변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속가능한 관광과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백제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지역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4가지 요인의 관점에서 이들 요인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구성요소와 체크사항들을 반영하여 세계유산의 관광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세계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국내외 세계유산의 활용방향과 요소¹⁾

1) 세계문화유산의 활용방향과 사례지역

- 세계유산에 선정되면 국가의 명예와 자부심이 증대되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며, 국가 관광산업 전체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에게는 보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유산의 지속성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관광산업으로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 수익증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 이는 지역사회 비전의 원동력이 되며, 이러한 발전은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저개발국의 세계유산이 등재되면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의 여러 관련 기구들을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사례지역으로 일본의 시라카와고,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중국의 리장, 베트남의 호이안, 한국의 하회마을 등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5곳의 문화유산을 살펴보았다.

2) 관광 활성화 관련 요소

- 세계문화유산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발전의 핵심요인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3가지 요인(13개 항목)을 선별하였다.

1) 박창완(2016),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 도시 관광 발전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요약 정리.

- (요인1) 행정, 관광서비스에서는 정부나 시의 관광 정책과 지원에 따른 효율성과 장, 단점을 도시별로 비교하였다. 관광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 실제 관광에 대한 가이드, 홍보 등의 다양한 준비를 통해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 (요인2) 생활환경은 원주민의 삶의 환경에 대한 부문으로 관광증가로 주민에게 부여되는 혜택, 자발적인 보존회를 통한 지속적인 관광 활동, 관광교육, 삶의 만족도 등이며, 생활양식의 지속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 (요인3) 관광콘텐츠에서는 전통문화콘텐츠의 다양성과 주변 콘텐츠와의 확장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문화유산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 관광 상품과의 결합된 콘텐츠는 세계적 관광 트렌드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관광객의 체험을 통한 자연, 문화의 실제 경험은 모든 문화유산에서 펼쳐지는 핵심적 관광 상품이다.

2. 국내외 세계문화유산 관광활성화 사례2)

1) 관광객의 증가변화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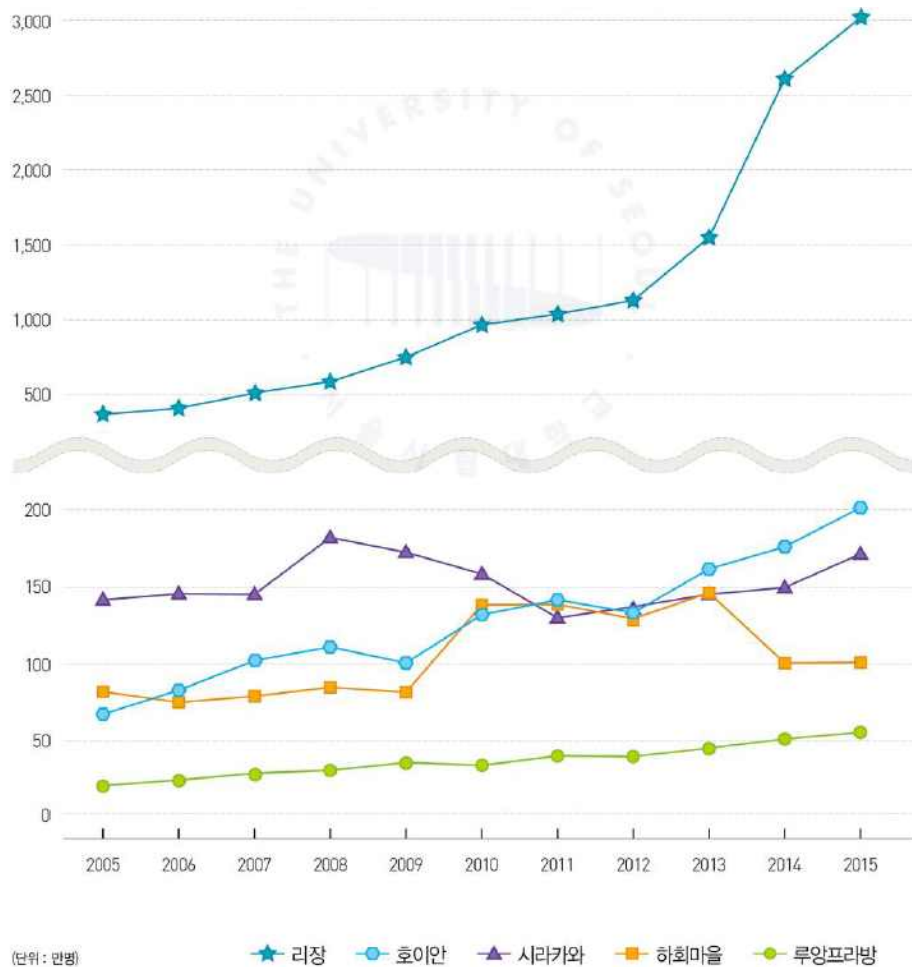
- 아시아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일본의 시라카와고,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중국의 리장, 베트남의 호이안, 한국의 하회마을 등 5곳의 비교 도시들은 성장률, 관광객 수, 외국인·내국인 비율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도시도 있지만 등락이 심하고 미래 예측이 어려운 도시도 있다.
- 시라카와고는 1995년 771,000명에서 2015년 1,727,000명으로 증가했다. 등락의폭은 있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비율도 15% 수준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숙박률이 5% 미만으로 대부분 당일 관광객인 관광 구조는 수익성에 한계를 보인다.
- 루앙프라방은 2015년도 관광객 수는 56만명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적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은 71%로 비교도시 중 가장 높으며, 숙박비율도 50% 수준으로 전체 증가율만 높아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리장은 2005년도 3,855,500명에서 2015년 29,414,400명으로 10년간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다. 외국인도 172,800 명에서 1,145,400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비율은

2) 박창완(2016),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 도시 관광 발전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요약 정리.

4% 미만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한계점을 보인다. 이곳도 당일 관광객 위주의 시스템으로 다양성이 요구된다.

- 호이안은 유산선정의 해인 1999년 160,000명에서 2015년에는 200만 명이 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비율 또한 항상 50% 이상의 수준이며, 숙박비율 또한 80%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 하회마을은 2010년 유산등재 해부터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최근 2년간은 많은 하락세를 보였다. 외국인 비율도 6%에서 3%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관광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문화유산 아시아 5개도시 관광객 방문객 변화 비교



자료 : 박창완(2016),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 도시 관광 발전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관광활성화 요인별 시책의 관련성 분석

- 이상의 관광활성화 요인으로 분석되었던 행정·관광서비스 요인, 생활환경 요인, 관광콘텐츠 요인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13개 항목 중에 가장 유의한 요인은 관광서비스의 숙박 및 편의시설 부문으로 연구 내용 중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이 요인은 관광객 만족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방문이나 직, 간접적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에 도움을 준다. 관광콘텐츠에서는 콘텐츠의 다양성에 의한 참여도 같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호응도 극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 그리고, 추가로 제시되고 있는 요인에서는 앞의 분석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통하여 관광증대 지표와 일치하는 유의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요인들의 다양한 연계성을 발견되었다.
- 생활환경 부문의 연구 결과, 정주인구 증가로 인한 관광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외부인에 대한 원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한데,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두 요인의 상관관계는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도시 주민의 협의를 통한 관광에 대한 적극성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그것은 관광증대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관광콘텐츠 부문의 연구 결과는 콘텐츠가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년 중 내내 관광객과 소통하는 문화콘텐츠는 그 지속성을 무기로 무한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정되고, 참여율 높은 문화적 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그러한 지속성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규모가 중요한데, 관광이 잘 활성화 되는 도시일수록 콘텐츠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통 문화콘텐츠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 실질적인 관광증대의 요인이 된다. 관광객에게 단순한 볼거리와 재미를 주는 것에서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융합될 수 있어야 하며, 이질적인 문화가 아닌, 다르지만 함께함으로서 그 도시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게 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 아시아 5개도시 관광활성화 요소 분석 I

		사타카와고	루앙프라방	리장	호이안	하회마을
(요인 1) 행정 관광서비스	정부, 시 정책	M	M	M	H	M
	차별화, 해외지원	M	H	M	M	M
	관광안내, 가이드	H	M	H	M	H
	숙박, 편의시설	M	M	H	H	M
	홍보의 현대화	H	M	H	M	H
(요인 2) 생활 환경	주민 관광 교육	H	M	M	M	H
	주민 인센티브	L	M	L	H	L
	주민 삶의 만족도	M	M	M	M	M
	지역 보존회 활동	M	M	M	H	M
	생활양식 지속성	M	H	M	H	M
(요인 3) 관광콘텐츠	콘텐츠 다양성	M	H	H	H	M
	지역콘텐츠 연계	M	H	H	H	M
	에코투어리즘	M	H	M	M	L

H - High / M - Middle / L - Low

세계문화유산 아시아 5개도시 관광활성화 요소 분석 II

		사타카와고	루앙프라방	리장	호이안	하회마을
(요인 2) 생활 환경	정주민구 증가율	L	H	H	H	L
	외부인 수용성	L	H	H	H	L
	주민 관광 참여도	M	M	H	H	L
(요인 3) 관광콘텐츠	콘텐츠의 상시성	L	H	H	H	M
	콘텐츠의 규모	L	M	H	H	L

H - High / M - Middle / L - Low

자료 : 박창완(2016),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 도시 관광 발전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분석의 결과에서와 같이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시책과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관광서비스와 홍보, 주민관광교육, 전통생활, 콘텐츠의 다양성과 지역 콘텐츠 연계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03

백제역사 유산도시 지정현황과 여건분석 및 발전과제

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현황

1) 등재개요

- 유산명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
- 대상 지역(8개소)
 - 공주(2개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4개소)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익산(2개소) :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 등재연도 :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부여나성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자료 : <http://whc.unesco.org/en/list/87>

설명 : ©UNESCO ; Author : Emmanuel Pivard; Fred Di Girolamo

2) 등재기준

- (ii) 특정 기간·지역 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며, 그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산임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불교 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를,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사라져 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임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될 것이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등재현황

■ 공주(2개소)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 공산성(사적 12호) : 백제 웅진시대의 왕궁을 방어하기 위해 지은 산성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 백제가 웅진에 수도를 두었던 475년부터 부여로 천도하는 538년까지 약 63년간 왕성은 웅진성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의 공산성으로 성은 공주시 금성동·산성동에 걸쳐 있는 약 20만㎡ 규모의 거대한 산성임
 - 성곽, 왕궁지, 성안마을 유적, 기타 산성내 건물지, 저장시설, 연못 등
- 송산리 고분군(사적 13호) : 무령왕릉을 비롯한 웅진시대의 왕과 왕족의 무덤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 송산리고분군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에 있는 웅진시대의 백제왕실의 능묘군이며, 백제 왕릉 혹은 무령왕릉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송산리고분군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은 모두 7기이며, 이들 고분의분포를 보면 계곡 서쪽에는 무령왕릉과 5~6호분, 동쪽에는 1~4호분이 있음

■ 부여(4개소):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 백제시대 최후의 도읍인 사비의 왕궁으로 추측되는 유적과 배후산성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쌍북리)
 - 관북리유적 : 대형건물지, 상수도시설, 저장시설, 연못, 백제시대 건물지, 도로, 석축 공방 시설 등
- 능산리고분군 : 사비시대 왕의 무덤으로 추정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
 - 고분군은 3기씩 앞뒤 2열을 이루고, 여기서 북쪽 후방으로 50m의 거리를 두고 1기가 자리하고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음
- 정림사지 : 사비시대 도읍의 중심에 있었던 사찰로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석탑이 위치함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번지
 - 정림사지지구는 정림사지(定林寺址)를 비롯해 그 주변에 자리한 쌍북리가마터를 포함한 지역을 말함
- 부여 나성 : 사비시대 수도방어 목적으로 지금의 부여읍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번지
 - 나성은 총 6.3km의 구간으로 나성은 북나성과 동나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벽의 축조 시기, 성벽의 축조기법, 문지를 비롯한 시설물 등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익산(2개소):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 왕궁리 유적 : 수도 사비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익산에 만들어진 별궁 유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번지 외, 금마면 동고도리 1109-8외
 - 왕궁리유적은 백제 왕실이 수도 사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별궁 유적으로 궁장(宮牆), 석축(石築), 대형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 정원(庭園), 공방과 생활관련 시설, 사찰관련 시설 등이 조성되었음
- 미륵사지 : 백제 무왕 때 건립된 국가사찰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번지
 - 백제 사찰 탑과 금당, 회랑을 세웠다고 함

백제역사유적지구 리플렛



2. 백제의 역사와 문화 특성

1) 백제 건국과 천도

- 백제는 마한 54국 가운데 한강유역에 위치했던 소국인 백제(伯濟)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된 국가로 건국과정이 매우 역동적임
- 건국설화는 온조, 비류, 구태, 도모 등 각각의 인물을 시조로 하는 건국 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건국관련 설화가 다수 보이는 것은 건국 당시의 복잡했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됨
- 백제의 성장과정은 곧 마한 여러 소국의 통합과정이었으며, 근초고왕 대에 마한세력의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대내적인 체제정비와 대외적인 팽창정책을 통해 국가체제를 정비함
- 특히, 근초고왕은 왜에 칠지도를 하사하고, 중국지역에까지 진출하는 등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함
- 한성에서 웅진으로의 천도는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사비천도는 왕권의 강화와 국가체제 정비를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됨

2) 백제 인물

■ 백제의 왕

- 백제 역사상 공식적으로 31명의 왕이 재위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백제의 주요 왕과 업적내용

구분	주요 업적 및 내용
온조왕 (B.C.18 ~ A.D.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의 시조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를 건국한 온조설화가 전해짐
고이왕 (234 ~ 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유역의 마한 여러 소국을 통합하여 고대국가체제의 기반을 세우고, 기본적인 관제 및 관등제, 각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함 • 6좌평제 및 복색제도, 그리고 왕의 복식 제정
근초고왕 (346 ~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모가 뛰어나고 지모가 심원하였다고 전해지며, 대내적인 체제정비와 대외적인 팽창정책을 실시 함 • 율령 정비를 비롯해 역사서인 서기의 편찬, 군사권의 통일 등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체제 확립하고, 왜 에 칠지도를 하사하였으며, 중국의 요서지역을 진출함
개로왕 (455 ~ 4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 군주적 통치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력의 낭비와 민심의 이반으로 인해 결국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고 한성이 함락됨
무령왕 (501 ~ 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이 8척이며, 눈썹이 그림같이 아름답고 인자관후하여 민심이 따랐다고 전해짐 • 즉위와 동시에 백가의 난을 진압하였으며, 잃어버린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해 고구려에 대한 공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둠 • 대내적으로는 농업진흥정책을 펼쳤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양나라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어 선진 문물의 수입에도 적극적이었음 • 그 결과 백제가 다시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백제의 발달된 문화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됨 • 특히 1971년도에 확인된 무령왕릉에서는 지석이 출토되어 무령왕의 존재와 역사기록의 사실성 등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108종 2,906점은 백제의 선진적인 문화를 잘 보여줌
성왕 (523 ~ 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령왕대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538년 사비로 천도하였으며, 553년에는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고구려의 한강 하류지역을 회복하였으나 다시 이를 신라에 빼앗기고 신라공격중 관산성에서 전사함
무왕 (600 ~ 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모가 뛰어나고 뜻과 기상이 호경다웠으며,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익산지역에서 마를 캐며 생활하다가 신라의 선화공주와 혼인하여 결국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음
의자왕 (641 ~ 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위정변을 일으켜 일부 왕족 및 고위직 관료 40인을 귀양보내면서 왕권강화에 성공하였으나, 재위 중반에 들어와 왕비의 전횡 등으로 실정을 함으로써 결국 나당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백제의 멸망을 초래함

■ 주요 왕의 업적 및 사건

● 무령왕과 무령왕릉

- 무령왕은 제25대 왕(501 ~ 523)으로 사마, 또는 웅이며 즉위이후 백가의 난을 진압함과 동시에 대내적인 체제정비에 노력함
- 무령왕은 상실한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해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국력을 회복하였으

며,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을 이룸

- 무령왕릉은 무령왕(501 ~ 523, 재위)과 왕비가 합장된 능으로, 1971년 7월 5호의 석실분과 6호 전축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작업을 하던 중 발견되어 조사됨
- 왕릉은 왕이 죽기 11년 전인 512년에 이미 축조 준비가 되어 있었음으로 나타내 주고 있으며,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으로 지석과 석수, 은제탁잔 등 국보로 지정된 것만도 12점에 이룸

무령왕릉과 무령왕릉 출토 유물



자료 : 국립 공주박물관(<http://gongju.museum.go.kr>)

● 성왕의 한강유역 진출과 시련

- 한강유역에 대한 진출은 무령왕 대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성왕은 16년(538) 사비로 천도한 이후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유역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다시 신라에게 빼앗기게 됨

●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와의 혼인과 미륵사의 창건

- 무왕은 제30대 왕으로 600년부터 641년까지 재위하였으며 정치적으로 혼란한 와중에 왕위에 올랐으나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 감행,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고 왕궁을 세워 익산경영을 하는 등 독자적인 정국을 운영해나가며 왕권을 강화시킴
- 무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익산지역에서 마를 캐며 생활하다가 신라의 선화공주와 혼인하여 결국 왕위에 올랐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음

● 의자왕과 백제멸망

- 의자왕은 왕위에 오른 직후 기존의 귀족중심의 정치운영체제를 개혁하고 신라의 40여개성을 함락시키는 등 호기로운 왕이었으나, 재위 중반부터 정치에 소홀하게 되어 결국 나당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백제는 멸망의 운명을 맞게 됨

Ⅰ 주요인물

- 백제에는 황산벌 전투를 이끌던 계백장군을 비롯해 흑치상지, 대야성을 공략하여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과 사위인 김품석을 죽인 윤충,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도침과 복신 등과 같은 장수들이 활동함
- 또한 백제의 역사에는 정절을 지킨 도미부인을 비롯해 백제의 마지막 왕이자 부흥운동을 주도한 풍왕,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준 학자인 왕인과 역사서인 국

사를 편찬한 박사 고흥, 승려인 혜현과 관료, 기술자로서 무령왕비의 팔찌를 제작한 다리와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한 아버지 등 많은 인물들이 존재함

백제의 주요 인물

구분	주요인물
귀족 · 장수	• 계백, 흑치상지, 윤충, 도침, 복신 등
주요인물	• 도미부인, 풍왕, 왕인, 고흥, 혜현, 관료, 아버지 등

3) 백제의 제도

■ 정치·행정제도

- 백제의 각종 제도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복원이 어렵지만, 『삼국사기』를 비롯해 중국사서에 일부가 전하고 있는데, 관등제는 고이왕 27년조에 6좌평에 이어 16관등명이 관등의 품계 등과 함께 기술되어 있음

백제의 정치 · 행정제도

구분	내용				
6좌평	• 내신좌평(宣納事), 내두좌평(庫藏事), 내법좌평(禮儀事), 위사좌평(宿衛兵事), 조정좌평(刑獄事), 병관좌평(外兵馬事)				
22부사 및 분장 업무	<table border="1"> <tr> <td>내관</td><td>• 전내부(국왕근시, 왕명출납), 곡부(곡물관리), 육부(육류관리), 내악부(왕궁내외 창고업무), 외악부(재정관리), 마부(어마관장), 도부(무기의 제작과 관리), 공덕부(불교사원 관장), 약부(어의), 목부(왕실 토목공사), 법부(왕실의례), 후궁부(후궁과 관련되는 제반업무), 사군부(외교병마), 사도부(교육과 의례)</td></tr> <tr> <td>외관</td><td>• 사공부(토목과 재정), 사구부(사법관장), 점구부(호구파악), 객부(외교 및 사신접대), 외사부(관료의 인사담당), 주부(직물의 제조·공급(조세담당)), 일관부(천문·기상관계), 도시부(시장업무 담당)</td></tr> </table>	내관	• 전내부(국왕근시, 왕명출납), 곡부(곡물관리), 육부(육류관리), 내악부(왕궁내외 창고업무), 외악부(재정관리), 마부(어마관장), 도부(무기의 제작과 관리), 공덕부(불교사원 관장), 약부(어의), 목부(왕실 토목공사), 법부(왕실의례), 후궁부(후궁과 관련되는 제반업무), 사군부(외교병마), 사도부(교육과 의례)	외관	• 사공부(토목과 재정), 사구부(사법관장), 점구부(호구파악), 객부(외교 및 사신접대), 외사부(관료의 인사담당), 주부(직물의 제조·공급(조세담당)), 일관부(천문·기상관계), 도시부(시장업무 담당)
내관	• 전내부(국왕근시, 왕명출납), 곡부(곡물관리), 육부(육류관리), 내악부(왕궁내외 창고업무), 외악부(재정관리), 마부(어마관장), 도부(무기의 제작과 관리), 공덕부(불교사원 관장), 약부(어의), 목부(왕실 토목공사), 법부(왕실의례), 후궁부(후궁과 관련되는 제반업무), 사군부(외교병마), 사도부(교육과 의례)				
외관	• 사공부(토목과 재정), 사구부(사법관장), 점구부(호구파악), 객부(외교 및 사신접대), 외사부(관료의 인사담당), 주부(직물의 제조·공급(조세담당)), 일관부(천문·기상관계), 도시부(시장업무 담당)				
16관등	• 좌평,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내솔, 장덕, 시덕, 고덕, 계덕, 대덕, 문독, 무독, 좌군, 진무, 극우				
복색	• 1~6품(자색, 은화관식), 7~11품(비색), 12~16품(청색)				

백제의 관복



자료 : 한성백제 박물관

■ 법률·교육제도

- 법률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9년조에 “명령을 내려 관리로서 뇌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한 자는 3배를 배상하게 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 교육제도는 근초고왕 30년 조에 박사인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으며,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4세기 후반 내지 5세기 초에 박사인 아직기와 왕인이 왜에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는 이야기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군사제도

- 군사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되는데, 중앙군은 왕도5부의 각 부에 500명의 상비군, 5방의 각 방에는 700~1,200명의 군사가 배치됨
- 병종은 육군과 수군, 육군은 다시 기병과 보병으로 구분되며, 보병의 주무기는 궁·시·도검·창·도끼 등으로 갑옷으로 무장 함

4) 백제의 산업

■ 농업 및 농경생활

- 백제는 비교적 넓은 평야와 수리시설에 알맞은 하천이 있어 일찍부터 농업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주요 작물은 쌀·보리·조·콩·기장 등 이른바 오곡으로 대형보습의 출토를 통해 우경(牛耕)의 실시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오곡과 여러 종류의 과일, 채소 등이 재배되었으며, 가축으로는 소와 돼지, 닭 등을 길렀음
-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온조왕대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고, 구수왕대에는 관련부서에 제방을 수리하도록 하고, 농사를 권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습지를 논으로 개간하고, 관개와 치수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 사실이 기록되어있음

■ 수공업

- 고대의 철제 무기로서는 각종 칼·창·도끼·낫·화살촉 등이 일반적이며, 농·공구로는 보습·따비·쇠스랑·낫·살포·자귀·도끼·삽날·톱·끌 등이 있음
- 금이나 금동으로 만든 관(冠)과 관식(冠飾), 귀걸이·팔찌·반지·허리띠·신발 등의 장신구는 물론, 각종 동물상을 비롯하여 베타·잔·향로 등의 공예·장식품은 백제의 세련된 금속 가공기술을 보여줌

5) 백제인의 생활

■ 의식주 생활

- 백제의 의생활은 고구려나 신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조(서기260년)에 기록된 공복(公服)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백제인은 관직에 따라 옷과 띠의 색깔, 꾸미개의 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전해짐

- 왕은 매가 큰 자주빛[紫色] 두루마기, 청색 비단바지, 가죽띠, 검은 가죽신으로 꾸몄으며, 6품 이상은 자주빛[紫色], 11품 이상은 붉은빛[緋色], 16품 이상은 푸른빛[靑色]의 옷을 입었다는 기록에서는 평민과는 다른 백제 귀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음

백제의 옷(양직공도 복원도)



자료 :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http://hanseong.songpa.go.kr>)

- 백제유적에서 발견된 가마솥과 청동제 냄비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 쌀과 보리·잡곡으로 밥을 지어 먹고, 콩을 발효시킨 간장과 된장을 담가 먹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으며 고구려·신라와 비슷한 음식문화를 가졌던 백제에서도 떡이 제수용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음
- 백제의 주거생활은 온조왕이 궁실을 지었던 일에 대해 “봄 정월에 새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았으며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를 유추하여 지배계층의 주거생활을 엿볼 수 있음
 - 삼국유사에는 돌석(塊石)이라 하여 스스로 덩혀지는 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온돌(구들)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조선시대에 중국인 동월(董越)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부(朝鮮賦)에는 “백제지방에서는 땅에서 뚝 떨어진 높이에 마루를 설치한 집을 짓고 사다리에 의지하여 오르내린다”라는 기록은 고상식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예임







백제인의 의식주 생활

구분	내용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투를 틀고 베로 만든 도포와 짚신을 착용함 • 자색의 옷은 왕 이하 6품 이상만이 입을 수 있으며, 금꽃으로 장식한 오라관과 흰 가죽띠, 검정 가죽신을 신고 정사를 담당함 • 6품 이상은 자색옷을 입고 은관을 장식하며,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함 • 평민에게는 대의 착용을 금지하고, 비자색을 평민의 복색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계가 있었음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의 음식문화는 오곡 및 채소와 잡과가 나옴 있어 기본적으로 현재의 식생활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됨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족들의 주거는 지상식 가옥이므로 와적기단이나 석축기단을 사용하여 건립되었으며, 수혈주거지, 고상식 가옥등도 일반적인 주거형태의 하나로 지상식 가옥에는 기와집, 구들시설 등이 있었음

놀이문화

- 백제시대 사람들은 투호, 악삭, 저포, 위기, 농주, 축국 등의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고 하며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의 문헌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음

백제인의 놀이문화

구분	내용	
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거리를 정해 편을 나누어 화살을 던져넣는 놀이로 던지는 거리는 3자(90cm) 정도이며, 12개의 화살을 던져 많이 들어가는 편이 이기는 놀이 	
위기(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는 바둑을 말하는데, 백제인들이 즐겼다는 것으로 보아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개의 나무토막을 던져 양복의 상태를 판단하여 여섯 개의 말을 먼저 나게 하는 쪽이 이기는 방식 	
악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륙의 일종으로 악소·장행국·파라색·쌍륙이 모두 한가지 종류이며, 주로 정월에 놀던 놀이라고 하는데, 추석이나 겨울철의 실내놀이로 애용됨 	
농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슬을 이용하여 노는 놀이로 룡완주, 또는 공기놀이라고도 한다. 두개 이상의 둥근 물체를 공중으로 던져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돌리는 놀이 	
활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층 사이에 숲속에 활쏘기와 말타기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음 	

6) 백제의 문화

■ 백제의 종교와 사상

- 백제에는 유교사상이 도입되어 이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불교사상 공인을 통해 불교가 매우 융성한 시기임과 동시에 유적·유물(산수문경전, 금동대향로 등)을 통해서도 도교사상이 매우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백제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은 다양한 자료 및 기록에서 고증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백제의 예술

구분	내용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의 그림으로는 공주 송산리 전축분, 부여 능산리 석실분의 사신도와 연화문, 구름문, 성수도 등 고분벽화가 대표적임 •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침과 족좌에는 연꽃과 주작의 형태가 그려져 있으며, 백제인의 회화수준을 보여주는 편린이 남겨져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가무 및 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악 : 정음사, 산유화가, 선운산가, 지리산가, 무등산가, 방등산가 등 • 기악무 : 기악면(가면을 쓰고 연출하는 기악무) • 타악기 : 고(鼓) • 현악기 : 공후, 차후, 쟁 • 관악기 : 각, 간, 호, 적, 필율, 막목, 장적, 고려적, 생소, 척입, 중관 등

백제의 예술



자료 : 국립 공주박물관(<http://gongju.museum.go.kr>)

- 백제의 관혼상제에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가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백제의 관혼상제

구분	내용
관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없으나 백제에서 관모가 발달한 점으로 볼 때 성인을 나타내는 관의 형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경우에는 가족모자로 머리를 덮고 옷깃을 구부려 이마에 두르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음
혼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서』 백제조의 기록에서는 "아내를 취하는 의례는 중국의 풍속과 거의 흡사하다(婦娶之禮略同華俗)"라는 기록이 있음 • 백제의 건국주체가 고구려로부터 이주해 온 세력이었던 점으로 보아 고구려의 혼례풍습인 서옥제(婿玉制)를 참고할 수 있음
상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서』의 백제조에서는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삼년상을 치르게 하고 나머지 친척의 경우에는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었다"는 기록이 있음
제례 (제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의 제례에 대한 기록은 국가의 시조(始祖)이거나 천지신(天地神)에 대한 제의 등 • 백제의 왕들은 즉위 후 이듬해 정월에 시조 동명묘에 배알하고, 남쪽 제단에서 천지에 제사지내는 전통이 있었음

■ 백제의 설화와 전설

- 백제의 설화·전설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일부 기록되어 있는데, 온조의 건국설화무왕의 출생과 미륵사 창건에 얽힌 연기설화 등이 있음
- 백제의 옛 지역에는 곰설화, 고구려 승려 도림설화, 도미설화, 충신관련설화, 패망에 얽힌 설화 등 많은 설화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음

백제의 주요 설화

구분	설화 내용
곰나루 전설	• 공주의 연미산 동굴에 살던 곰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붙잡아 함께 살면서 자식 셋을 낳았으나 나그네가 결국 떠나버리자 곰이 자식들과 함께 강물에 빠져 죽은 후 금강에서 배가 자주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곰을 위한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함
승려 도림설화	•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간첩승인 도림을 백제로 보내 개로왕으로 하여금 국부를 당진케 하고, 결국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였는데, 『삼국사기』 개로왕 21년(475)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도미부인 설화	•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도 절행이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개로왕이 듣고 도미를 붙잡아 두고 그 부인의 정절을 시험하나, 꾀를 내어 정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3. 백제문화의 콘텐츠화 방안

1) 문화예술

- 문화예술분야는 백제 문화·예술의 현재적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자료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분야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으로 다양함
- 문화예술분야의 콘텐츠는 우선 테마역 내에 회화 및 문양을 이용하여 역사내부 꾸미거나 전시하고, 무용 및 연극은 이벤트 및 상시공연 등 부문에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문화예술 분야

구분	주요내용
문학	• 설화와 전설을 모티브로 한 글쓰기,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 흑치상지의 부흥운동 전개와 변절과정에서의 고뇌
음악	• 백제의 전통악기 재현, 금동대향로 5인 주악상과 악기의 복원, 백제를 주제로 한 가사 등
미술	• 백제 회화 및 문양을 이용한 디자인, 무령왕릉 및 사신도(四神圖), 놀이문화를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금동대향로의 문양을 소재로 한 상상화
무용	• 건국설화를 주제로 한 창작무용, 백제 기악무의 재현, 금동대향로의 세계 표현
연극	• 근초고왕의 마한통합과 대외진출을 주제로 한 공연, 무령왕 탄생설화, 성왕의 한강회복과 관산성 패전에서의 죽음, 개로왕과 도미부인의 정절, 황산벌전투 출정에 임한 계백,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 • 특히, 각 지역에는 다양한 설화와 전설이 전승되고 있는데, 이들 이야기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예술제 등에 활용할 경우 그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임

백제 문화예술 콘텐츠



2) 교육 및 관광

■ 교육프로그램 도입

- 역사가 지닌 의의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교훈으로서의 역사이므로 학계에서 연구된 백제 역사·문화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함
- 특히, 관련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한 백제관련 유적·유물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육적 효과 극대화함

■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분야는 그동안 주로 유형의 문화자원이 활용되어 왔으나 유형의 문화자원에 있어서도 그 내면에는 무형의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요소 개발
- 충남에는 많은 역사자원이 분포하고 있는데, 공주·부여의 천도와 왕도자원, 불교사상과 관련유적, 도교와 관련유적, 계백의 충의정신과 황산별전투, 도미부인과 삼천궁녀로 상징되는 절의정신, 부흥운동과 전적지, 각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과 관련유적의 연계 등의 주제별 관광자원화
- 역사교육과 문화관광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 시너지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용

백제 교육 및 관광 콘텐츠



자료 : 공주박물관 홈페이지(<http://gongju.museum.go.kr>); 공주시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cyber_gongju)

3) 축제 및 이벤트

■ 설화와 전설을 활용한 축제 이벤트 개발

- 공주역의 광장을 활용하여 공주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축제 이벤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은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속에서 축제의 내용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소자본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가 크다는 이점이 있음
- 백제의 역사 중 성왕의 사비천도 과정이나 무왕의 익산행차 퍼레이드를 비롯해 계백장군 출정식과 황산벌전투의 재현, 백제의상 패션쇼, 백제음식 재현, 관혼상제의 재현, 공주 정지산유적 등을 응용한 백제의 제사의식, 백제의 제천의식 등의 축제 이벤트 콘텐츠를 개발함
- 이외에도 백제왕들의 제천의식 재현을 통해 희생을 잡아 제단에 바치고, 왕과 관리들이 제단 앞에서 함께 제천의식을 거행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백제의 전통의식과 다양한 복식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함
- 행사를 주관하는 왕을 지명도 높은 인물로 지정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배가시키고, 밤에 조명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여 더 큰 감동을 전달하도록 함

백제 관련 축제 및 이벤트



자료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http://www.baekje.org>); 공주시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cyber_gongju)

■ 웅진시대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이벤트 자원 개발

- 공주역은 행정구역상 공주에 위치함에 따라 공주의 유적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벤트 프로그램으로서 자원개발이 필요함
- 이중 웅진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인 무령왕릉을 활용하여 축조를 재현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되 절에 가면 기와 시주를 받듯이 이벤트에 사용되는 벽돌을 관광객이 기증하도록 함
- 벽돌에는 기증하는 사람의 이름과 소망하는 내용을 담아 축조 뒤 내부를 공개하여 자신이 기증한 벽돌을 찾아보는 체험으로 우리 문화재와 기부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함

- 또한 무령왕릉에서 지석이 출토되어 백제시대 장례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음에 따라 백제시대의 장례의식 재현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을 통해 교육자료로 활용
- 동성왕의 사열식 재현 : 공산성에서는 주말을 이용하여 수문병 교대식을 하고 있지만 고증작업을 거쳐 동성왕이 대군을 모아놓고 사열하는 장면을 시연하는 것은 또 다른 볼거리 제공
- 임류각에서의 연회 재현 : 임류각은 동성왕대에 연회를 즐기던 장소로 현재 공산성 안에 복원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연회 재현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 무령왕의 생애 : 왕위에 등극 후 농사를 권장하고, 중국 남조와 활발한 교류를 꾀하며,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등 웅진시대 백제왕 중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업적을 남긴 무령왕의 일대기를 동영상 콘텐츠화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4) 브랜드 및 문화상품

■ 원천자료의 디지털콘텐츠화

-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나타난 특징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디지털 콘텐츠화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창작소재 제공이 필요함
- 백제 문화와 관련하여 역사뿐만 아니라, 회화, 서예, 복식, 문양, 음악, 춤 등의 예술형 소재와, 전투, 놀이, 외교, 교역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가공하여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단순한 DB구축이 아닌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성 증대가 필요함
- 백제 문화자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한정되고, 비실용적인 소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를 그대로 상품화하기 보다는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대폭 수정을 하고, 활용성을 높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나 의미만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음

■ 무령왕릉 출토품의 상품화

- 무령왕릉에서는 108종 2,906점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재질, 문양, 디자인 면에서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음
-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권에서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의 조성과 함께 백제 문화권에서만 구매할수 있는 상품이 필요함
- 출토품 중 관식, 귀걸이, 목걸이, 팔찌, 왕과 왕비의 복식, 동탁은잔, 왕과 왕비의

수저, 환두대도 등 다양한 유물의 모티브는 살리되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 재창조하여 상품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역별로 기 개발된 백제관련 문화상품과 함께 역사적인물, 캐릭터 등을 통해 다양화 할 수 있는 콘텐츠화가 필요

백제 관련 브랜드 및 문화상품

백제문화재 로고	금제관식 기념품	고마곰과 공주 마스코트 인형	백제 문양 활용 상품
			

자료 : 공주시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cyber_gongju)

■ 문화콘텐츠화(Culture & Contents Technology) 활용

- 공주테마역내의 영상홍보관의 설치와 함께 백제의 역사, 문화 등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상영되어야 함
-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주로 영화, 애니메이션(캐릭터),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충분한 고증을 통해 역사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 요구됨
- 항산벌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 ‘항산벌’은 사례 중 하나이며,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주제로는 근초고왕의 마한통합 및 고구려와의 전쟁(평양성전투게임)과 대중국·왜와의 교류,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간의 각축과 성왕의 한강회복 노력, 도미와 도미부인의 믿음과 사랑, 곰나루와 곰설화, 의자왕 즉위 후의 정변과 왕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암투,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사랑과 무왕의 즉위와 익산경영, 금동대향로가 함축하고 있는 사상과 내용, 백제인의 생활상 재현 등이 있음

백제 문화 콘텐츠 예시

고마곰과 공주 애니메이션	백제군사박물관 플래시게임	영화 ‘항산벌’	드라마 ‘서동요’
			

2. 공주부여 지역 관광환경 분석

1) 관광객 방문현황과 추이

■ 지역별 관광객 추이

- 충남의 관광객 및 공주부여 주변지역의 관광객은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관광객 집계 및 조사방식 변경되어 큰 폭의 관광객이 감소한 이후 큰 증가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15년 기준 7,034,492명으로 충남을 방문한 관광객의 37.6%가 공주부여 주변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공주시에 2,686,787명이 방문하여 지역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 2012년까지의 관광객 추이는 공주시가 부여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2013년 이후 공주시의 관광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청양군의 관광객 수는 2005년 1,210,908명에서 2015년 2,147,459명으로 연평균 5.9%의 증가세를 보였음³⁾

공주부여 주변지역 관광객 추이(2005-2015)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충청남도	84,260,665	102,411,143	98,714,807	92,925,827	11,821,582	17,520,905	18,731,870	-14.0%
백제문화권	7,731,138	15,414,647	12,836,313	13,559,619	5,081,401	5,427,735	7,034,492	-0.9%
공주시	3,350,331	4,942,959	4,127,243	4,700,980	2,443,694	2,404,344	2,686,787	-2.2%
논산시	265,361	1,447,404	1,529,097	1,700,303	430,116	181,962	195,280	-3.0%
계룡시	0	0	0	0	0	42,173	45,547	-
부여군	2,904,538	7,507,500	5,447,973	5,271,433	1,609,539	1,401,272	1,959,419	-3.9%
청양군	1,210,908	1,516,784	1,732,000	1,886,903	598,052	1,397,984	2,147,459	5.9%

주 : 2013년 이후 관광객 통계 집계 방식 변화로 관광객 수의 변동이 일어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가장 많은 관광객이 집중한 관광 목적지는 계룡산으로 2015년 기준 1,026,172명이 방문하였으며, 천장호 출렁다리, 부소산성을 각각 768,922명, 693,296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공주부여 주변지역 중 관광객이 집중한 관광지를 살펴보면 계룡산, 칠갑산 등의 자연자원이나 백제문화와 관련된 자원들을 알 수 있음

3) 2012년까지 충남의 관광객 수 집계가 해수욕장이 포함됨에 따라 서해안권에 집중되었던 관광객 비중이 2013년 이후 집계 지점이 변화함에 따라 해안권보다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관광객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관광목적지별 관광객 추이(2015년 기준)

구분	목적지명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1	계룡산	944,136	999,069	1,026,172	2.8%
2	천장호 출렁다리	-	562,776	768,922	-
3	부소산성	447,931	476,603	693,296	15.7%
4	칠갑산	-	153,475	567,564	-
5	국립공주박물관	513,481	497,381	539,695	1.7%
6	국립부여박물관	432,087	257,855	491,272	4.4%
7	청양알프스마을	251,839	212,192	351,567	11.8%
8	마곡사	361,144	363,717	336,144	-2.4%
9	공산성	248,426	136,020	323,467	9.2%
10	자연사박물관	184,564	224,544	216,793	5.5%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2015년 7월에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이후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방문한 관광객은 등재 전 575,069명에서 2015년 1,010,992명으로 75.8%의 증가율을 보였음
- 가장 많이 증가한 유적지는 공산성으로 2014년 78,440명에서 214,981명으로 174.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집중된 관광지는 부소산성으로 391,539명이 방문하였음

세계문화유산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지정현황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 통계

(단위 : 명, %)

구분	2014년 (7-12월)	2015년 (7-12월)	증가 관광객수	연평균 증가율
총계	575,069	1,010,992	435,923	75.8%
소계(공주시)	215,095	417,863	202,768	94.3%
공산성	78,440	214,981	136,541	174.1%
송산리고분군	136,655	202,882	66,227	48.5%
소계(부여군)	359,974	593,129	233,155	64.8%
부소산성	253,560	391,539	137,979	54.4%
정림사지	83,300	156,580	73,280	88.0%
능산리고분군	23,114	45,010	21,896	94.7%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2) 관광자원

■ 역사문화자원

- 2016년 기준 충남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35건, 도지정 425건, 문화재자료 314건으로 총 974건의 등록문화재가 충남 전역에 분포하고 있음
- 이 중 45.7%인 445건의 문화재가 공주역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공주시와 부여군이 각각 152건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표적인 백제문화권 지역으로서 두 지역에 백제시대 유적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공주부여 주변지역 문화재 현황(2016년 4월 기준)

(단위 : 인, %)

구분	합계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자료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무형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 자료	소계	유형	기념 물	무형	민속	
충청남도	974	235	27	108	49	3	8	15	25	425	187	161	49	28	314
공주역세권	445	125	21	58	31	2	2	3	8	197	101	67	19	10	123
공주시	152	47	16	21	8	1	1	0	-	74	46	20	6	2	31
논산시	95	16	-	10	2	-	-	1	3	45	24	15	3	3	34
계룡시	8	0	-	-	-	-	-	-	-	4	1	1	1	1	4
부여군	152	52	3	20	21	1	1	2	4	56	23	27	6	-	44
청양군	38	10	2	7	-	-	-	-	1	18	7	4	3	4	10

자료 : 충청남도, 2016 충청남도 관광기본자료, 2016년

자연관광자원

-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구분되며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 대표할 지역으로서 지정됨
- 충남의 국립공원은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계룡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주시에 위치하면서, 논산시, 계룡시에 걸쳐 있으며, 공주역과는 불과 14km(계룡산 갑사 기준) 거리에 위치함
- 도립공원은 충남에 총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논산과 금산에 위치한 대둔산 도립공원과 청양의 칠갑산 등이 공주부여 주변 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 계룡산과 칠갑산 등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공주부여지역을 거점으로 연계 관광상품 등의 개발을 통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공주부여 주변지역 자연공원 현황

구분	소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군립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충청남도	11	566,834	2	442,354	2	77,94	5	46,54
공주역세권	4,5	115,059	1	65,335	1,5	49,334	2	0,39
공주시	1	65,335	1	65,335	—	—	—	—
논산시	0,5	16,384	—	—	0,5	16,384	—	—
계룡시	—	—	—	—	—	—	—	—
부여군	—	—	—	—	—	—	—	—
청양군	3	33,34	—	—	1	32,95	2	0,39

자료 : 충청남도, 2016 충남관광기본자료, 2016년

충남 자연공원 현황



- 금강은 공주시, 부여군을 통과하여 서해로 유입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유람선, 수변관광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 공주에는 계룡산에 인접하여 있으며, 대둔산, 칠갑산 등과 금강 등 지역의 자연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연계 관광 코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관광진흥법 제2조) 2016년 3월 기준 충남에는 총 26개의 관광지가 있으며, 이 중 공주부여 주변지역에는 공주시 4개소, 부여군 2개소, 청양군 1개소 등 총 7개의 관광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임
-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의미하며(관광진흥법 제2조) 전국 39개 관광단지 중 충남에는 총 2개, 이 중 공주부여지역에는 부여군의 백제문화관광단지가 있음.

공주부여 주변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2016년 3월 기준)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개소	관광지명	개소	관광단지명	주요도입시설
충청남도	26	-	2	-	-
공주부여권	7	-	1	-	-
공주시	4	곰나루, 공주문화, 마곡사, 마곡온천	-	-	-
논산시	-	-	-	-	-
계룡시	-	-	-	-	-
부여군	2	서동요역사, 구드래	1	백제문화	호텔, 아울렛, 박물관 등
청양군	1	칠갑산 도림온천	-	-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관광지 중 곰나루, 공주문화, 서동요역사, 구드래 관광지와 백제문화단지는 박제역사 및 문화를 콘텐츠로 하여 조성하였으며 특히, 백제문화단지는 삼국시대 백제왕궁을 재현한 곳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으로 백제역사문화관과 함께 백제문화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관광지는 대부분 공주시 중심지 및 부여군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음에 따라 공주역부터 연계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확충 및 접근성 확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

관광지 현황



■ 인문관광자원(박물관 등)

- 공주부여 주변은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역에 총 14개소의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주에 9개소로 가장 많은 박물관이 분포하며, 부여군에 4개소, 논산시에 1개소가 위치한 반면 계룡시와 청양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주부여 주변지역의 박물관은 역사, 자연, 민속극, 군사 등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으로 2015년 기준 2,902,474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일평균 방문객은 14,60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공주역 주변지역 박물관(2015년 기준)

구분		박물관명	소장유물	등록유물	유물종류	연관람인원	일평균 관람인원
충청남도		46	-	-	-	-	-
공주역세권	소계	14	-	-	-	2,902,474	14,603
공주시	소계	9				1,256,783	9,469
	국립	국립공주박물관	58,623	58,623	금제관식 등	539,695	1,724
	공립	충청남도역사박물관	14,575	14,575	김이교유물 일괄 등	35,114	113
	공립	석장리박물관	3,250	2,911		156,303	430
	공립	송산리고분군모형관	-	-	-	335,024	923
	사립	동산박물관	3,950	300	자기, 석조유물, 전적	3,400	11
	사립	공주민속극박물관	1,247	1,247	민속품	12,150	41
	사립	계룡산자연사박물관	278,389	-	지질분야, 육상생물, 해양생물, 민속자료	172,054	541
	대학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	7,900	-	고고, 미술품	3,000	5760
	대학	공주대학교 박물관	12,590	-	고고, 서화류	43	-74
논산시	소계	1				144,160	464
	공립	백제군사박물관	490	490	이삼장군유물	144,160	464
계룡시	-	-	-	-	-	-	-
부여군	소계	4				1,501,531	4,670
	국립	국립부여박물관	58,104	49,570	백제금동대향로 등	588,291	1,886
	공립	능산리고분군전시관				58,276	159
	공립	정림사지박물관	877	877	고고, 민속품 등	176,424	485
	공립	백제역사문화관	500	500	고고유물	678,540	2,140
청양군	-	-	-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지역축제

- 2015년 기준 충남에는 총 107개의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공주부여 주변지역에서는 특산물, 지역 관광자원, 역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가 총 21건이 개최되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논산시와 청양군에서 각각 6건의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중 우수축제로 지정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음

공주역 주변지역 지역축제 개최 현황

구분	축제수	축제명	개최월	개최장소	주요프로그램
충청남도	107	-	-	-	-
공주역세권	21				
공주시	5	계룡산 산신제	5월	신원사 일원	유불무가식 산신제, 점사체험
		마곡사 신록축제	6-7월	마곡사일원	명상길 걷기, 템플스테이
		공주알밤축제	9월	공산성 주차장	알밤판매, 체험 부스 운영
		백제문화제	9월(10월)	금강신관공원 및 공산성 일원	웅진성퍼레이드, 백제마을 등
		공주항공축제	9월(10월)	의당면 수촌리	항공기 무료탑승체험
논산시	6	대둔산논산수락계곡 얼음축제	1월	논산시 벌곡면	얼음봅슬레이, 눈썰매, 조각공원
		논산딸기축제	4월	논산시	딸기수확체험, 딸기음식체험
		상월고구마축제	9월	금강대학교	고구마캐기체험
		강경발효젓갈축제	10월	강경읍	젓갈김치담그기등
		연산대추축제	10월	연산장터	풍물놀이, 대추빨리먹기
		양촌곶감축제	12월	양촌체육공원	감따기, 곶감깎기
계룡시	1	2015계룡軍문화축제	10월	계룡대 비상활주로	공연, 전시, 체험, 이벤트, 부대행사 등 60여 종목
부여군	3	부여송국리 청동기 문화체험 축제	5월	부여군 초촌면	청동기문화체험(衣·食·住)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 농·특산물판매장 등
		부여서동연꽃축제	7월	부여 서동공원	주제공연, 체험, 전시, 경연, 문화예술공연 등
		백제문화제	9월(10월)	부여읍 일원	제·불전, 백제역사문화행렬, 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청양군	6	칠갑산얼음분수축제	1월	칠갑산알프스마을	얼음분수, 썰매장 체험
		칠갑산 산꽃마을축제	4월	청양군 대치면	야생화전시, 농촌체험, 농특산물판매
		칠갑산세계조롱박축제	8월	칠갑산알프스마을	조롱박터널, 승마체험 등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10월	장승공원	칠갑산산신제, 전국장승깎기대회 등
		까치내밤참축제	10월	까치내농촌 체험마을광장	참게잡기체험, 알밤깎기 등
		칠갑산공축제	11월	칠갑산알프스마을	콩가공식품판매, 콩타작체험 등

자료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내부자료(2015)

지역 주요 관광 명소

- 지역별 주요 관광명소를 살펴보면 논산시를 제외한 4개 시군에서 8경 혹은 10경으로 가장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지정하고 있음
- 공주와 부여군의 경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공산성, 무령왕릉, 부소산, 정림사지, 백제왕릉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논산시, 계룡시, 청양군은 지역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8경 및 10경을 선정하였음
-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역사, 관광자원으로써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이들 지역과 연계한 공주역의 활성화가 필요함

공주부여와 주변지역 관광명소

구분	명칭	내용
공주시	공주 10경	제1경 갑사, 제2경 계룡산, 제3경 금강, 제4경 공산성, 제5경 고마나루 제6경 무령왕릉, 제7경 마곡사, 제8경 창벽, 제9경 석장리 풍경, 제10경 금학생태공원
논산시	주요관광지	관촉사, 탑정호, 대둔산, 계백장군유적지, 쌍계사, 개태사, 옥녀봉과 금강, 노성산성, 돈암서원, 명재고택,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밀리터리파크
계룡시	계룡 8경	제1경 계룡대 통일탑, 제2경 계룡산, 제3경 솟을추, 제4경 신도내주초석 제5경 암용추, 제6경 사계고택, 제7경 천마산, 제8경 향적산
부여군	부여 10경	부소산 낙화암, 정림사지5층석탑, 궁남지사계, 백제왕릉원, 천정대백제보, 백마강 수상관광, 백제문화단지, 만수산무량사, 서동요테마파크, 성흥산 사랑나무
청양군	청양10경	제1경 칠갑산도립공원, 제2경 장곡사, 제3경 천장호출렁다리, 제4경 칠갑산천문대 제5경 우산성, 제6경 장승공원, 제7경 지천구곡, 제8경 고운식물원, 제10경 모덕사

자료 : 충청남도(2017), 2016 충남관광기본자료.

공주역 연계 여행상품현황

- 공주부여지역을 거점으로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은 공주역-공주-부여(계룡)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지역의 문화유산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적을 코스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주부여지역을 연계한 여행상품은 공주코스(부여코스(아름여행사)), 코레일관광개발), 공주체험코스(KTB대한여행사), 공주부여코스(KTB대하여행사), 부여농촌체험코스(KTB대한여행사)가 판매운영 중임
- 이 외에도 계룡시의 계룡대와 연계한 계룡대 병영체험 등을 백제역사프로그램에 추가를 통해 역사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음

- 공주부여지역 연계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역사문화유적관람의 형태에서 보다 체험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공주역이 단순한 집결 장소가 아닌 관광 목적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테마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

공주부여지역 연계 여행상품현황

구분	주요 내용	
운행코스	공주코스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역-공주역-공산성-무령왕릉-마곡사관광지구/자유석식-마곡사 솔바람길-공주국립박물관&공주한옥마을&공예품전시관-백미고을/자유석식-공주역출발-용산역
	공주체험코스 (KTBD대한여행사)	용산역-공주역-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한옥마을-백미고을 음식특화거리-공산성-밤양갱 만들기 체험/알밤줍기체험-공주역-용산역
	공주부여코스 (KTBD대한여행사)	(주중코스) 용산역-공주역-석장리박물관-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백미고을-정림사지-부소산성-궁남지-구드래음식특화거리-공주역-용산역 (주말코스 A) 용산역-공주역-부소산성-구드래음식특화거리-궁남지-정림사지-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산성시장-공주역-용산역 (주말코스 B) 용산역-공주역-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백미고을-부소산성-궁남지-정림사지-부여중앙시장-공주역-용산역
	부여코스 (아름여행사)	용산역-공주역-부소산성-백마강유람선-구드래 음식특화거리-정림사지-궁남지-부여기와마을-공주역-용산역
	부여농촌체험코스 (KTBD대한여행사)	용산역-공주역-부소산성-송죽녹색체험마을-궁남지-정림사지(주말X)-능산리고분군-부여중앙시장(주말X)-공주역-용산역
	계룡대 병영체험	용산역-공주역-계룡대-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음식문화거리-공주역-용산역

자료 : 충청남도(2017), KTX공주 테마역 조성계획(안)

3) 백제문화 관련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현황

-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개발은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 자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09년 기준 문화관광자원개발 168개 사업에 1,57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강권 5개 시·군 지역은 공주고도관광자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였음⁴⁾.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금강권 관광 공동상품개발(안)

백제문화유산 연계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충남	공주	공주고도관광자원, 무령왕릉역사지구 관광자원개발, 웅진백제 4대왕송모관 건립,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 논산탑정호아쿠아아일랜드 조성 사업, 노성산애행공원조성, 강경군대역사문화공간관광자원화, 대둔산도립공원오토캠핑장조성, 논산육군훈련소병영테마파크
	계룡	계룡안보체험교육장 조성
	부여	서동공원 관광자원개발, 구드래역사마을조성, 세계유산부소산성 백제역사문화상상뮤지엄설치, 백마강수상관광기반시설조성
	서천	문헌서원 전통역사마을 조성, 구 장항역 문화관광공원 조성
	청양	칠갑호관광명소화사업, 천장호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
전북	익산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지정관광지 및 문화관광 개발사업 현황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금강권 관광 공동상품개발(안)

3. 공주부여 유산도시 세계화의 발전과제 도출

1) 세계문화유산의 브랜드화와 관광명소성 강화

-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제고되고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유적에 대하여 관광명소성을 높여야 함.
- 특히, 백제역사유적이 현재까지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알리지 못한점이 있기 때문에 관광명소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뿐만아니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의 역사자원이외에도 주변의 관광자원과도 연계되는 관광코스와 관광상품화도 필요함.

2) 편리한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서비스 제공 필요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명소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 음식, 교통, 관광편의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물적·인적 관광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됨.
-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공주와 부여 등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형의 관광기반시설의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와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3) 관광진흥을 위한 시·군 지역간 공동협력시스템 구축

- 공주와 부여 등의 백제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여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을 위한 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함.
- 그리고, 이러한 역사문화도시로의 개발과 함께 관광도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도시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공동협력을 해야 하나 현재 공주와 부여 등은 관광연계를 위한 공동협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4) 문화유산 관광활용을 위한 지역내 관광업체간 협력사업 추진

-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관광자원화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공동협력체계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도 지역주민과 단체계의 관광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공주와 부여, 익산 등은 고도보존사업을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각각이 지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광과 활용을 위한 역할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그렇기 때문에 공주와 부여 등의 관광관련 사업체들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에 대비하여 지역내 관광협력단체나 조직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주민과 향토업체 참여형 관광사업의 추진 활성화

- 공주와 부여 지역의 백제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지역내 입지하고 있는 숙박, 음식, 토산품점 등과 같은 관광과 관련된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 등과 같은 관광인적서비스 등에 대한 향토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여건이 현재는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주민과 향토업체 참여형 관광사업의 추진을 지역주민과 업체가 주도하는 내발적 추진체계로 이루어져야함.

04

백제역사 유산도시 세계화 육성방안

1. 기본방향

1) 세계문화유산의 국제적 브랜드화와 관광명소화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함.
- 이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백제유적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성과 역사성의 자원을 내세울 수 있는 관광도시로서 국제적 기구의 가입과 회의 유치에 필요함

2) 국내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의 강화

-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후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주와 부여지역내 숙박과 음식,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식공간 등의 관광기반시설이 갖추어야함.
- 특히, 공주와 부여 등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당일로 경유하여 다른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관광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지의 기능을 집적(集積)시켜 관광객들을 수용함.

3) 협력적 통합 도시관광상품의 개발과 공동운영 사업 추진

-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역사자원을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공주와 부여 등의 백제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하여 광역적인 협력 도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상호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의 접근 거리도 분산되어 비교적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간 공동으로 상호연계되는 관광협력시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함.

4) 지역 관광업체간 공동협력 상품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 공주와 부여 등의 지역내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업체간 자율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공동의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함.
- 특히, 지역내 공동협력의 관광상품들은 통합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실시함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관광패스’ 등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함.

5)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참여형 일자리 창출 관광사업 추진

-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로 역사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통하여 후손에 물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함.
- 그러므로 백제역사유적지구뿐만 아니라 공주와 부여 등의 도시내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사업체이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형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함.

기본방향

기본방향	세계문화유산의 국제적 브랜드화와 관광명소화
	국내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의 강화
	협력적 통합 도시관광상품의 개발과 공동운영 사업 추진
	지역 관광업체간 공동협력 상품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참여형 일자리 창출 관광사업 추진

2. 백제역사 유산도시 세계화 육성전략

1) 공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과 네트워크 포럼 개최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현재 전세계 116개 곳이다.⁵⁾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은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창의성에 주목하며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과 도시들 간의 비경쟁적인 협력과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회원국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 영화, 음악,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미식학 등 7개의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신청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환경, 선호에 따라 이들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⁶⁾

■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정현황

- 우리나라 도시중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도시는 다음과 같다.
 - 공예와 민속 예술(Crafts & Folk Art)로 지정된 도시는 경기도 이천시(2010년)
 - 디자인(Design)으로 지정된 도시는 서울특별시(2010년)
 - 미식(음식, Gastronomy)으로 지정된 도시는 전라북도 전주시(2012년)
 - 영화(Film)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광역시(2014년)
 - 미디어 아트(Media Arts)로 지정된 도시는 광주광역시(2014년)
 - 음악(Music)으로 지정된 도시는 경상남도 통영시(2015년) : 5년 4개월 소요
- * 음악자산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승전무, 통영오광대, 남해안별신굿, 윤이상관련 행사

5) <https://ko.wikipedia.org/wiki/>

6) <http://culturenomics.tistory.com/355>

와 공연장, 통영국제음악당, 통영국제음악제 등

- 문학(Literature)으로 지정된 도시는 국내에 없음
- 공예 민속 예술(Crafts & Folk Art)로 진주시 지정 추진중(2019년)

■ 웅진백제 공주의 음악 민속예술 창의도시 관련 자원과 콘텐츠 현황

① 백제의 음악 미마지의 가치와 활용

● 백제시대의 음악⁷⁾

- 미마지(味摩之)는 백제(百濟)의 음악가·무용가이다. 중국 오(吳)나라에서 기악무(伎樂舞)를 배우고 돌아온 후 612년(무왕 13) 일본에 귀화(歸化)하여 사쿠라이[櫻井]에서 소년들에게 기악무를 가르쳤다.
- 그에 의해 전수된 기악은 여러 절에서 연주되었고, 그때 기악무에 쓰던 가면이 일본 동대사(東大寺) 등 여러 절에 보관되어 있다. 그가 전하였다는 기악무는 한국의 산대 가면극(山臺假面劇)과 같은 것으로, 불교포교를 위한 교훈적인 내용을 지닌 것이다. 《일본서기》에 그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 백제 기악 미마지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노력

- 백제의 음악·무용가인 미마지는 중국 오나라에서 기악무(伎樂舞)를 배우고 돌아온 뒤 612(무왕 13)년에 귀화해 소년들에게 기악무를 가르친 원조 한류스타다. 올해는 백제 기악무 일본 전파 1400주년이 되는 해다.
- 2012년 제58회 백제문화제에서는 일본에서 백제를 알고자 백제 미마지를 복원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일본 미마지 보존 미야가와 회장은 "백제 기악이 일본에 온 지 오래되었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사또 교수가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도 한국도 기악 공연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지금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하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기악을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일본의 미마지 복원을 주관하는 사또 교수는 "기악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 복원이 어려운데 31년 전 1980년대에 나라 현 호류사(1993년 지정 일본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으로 금당 내부에는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그린 벽화가 있으며, 그 외 약사여래좌상 등의 국보급 문화재가 수백 점 소장되어 있다. 사찰의 지붕을 수

7) <http://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dictionaryView>.

리하자고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하나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으로 기악 복원이
 얘기되었다"고 말하여 미마지에 대한 복원과 활용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다.

- 또한, "752년에 기악이 성대하게 공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많은 자료가 남
 아 있지 않다, 복원을 해보자는 의미로 추진되면서, 공주·부여에서 612년에 미마지
 가 일본으로 백제 기악을 전했다는 자료에 의해 복원 연구를 하기 위해 같이 협력과
 협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사토 교수는 "기악은 일본 사찰에서 외국의 사절들을 환대하면서 음악으로
 궁중에서는 '아악'(雅樂 연주하던 양부악(兩部樂)의 하나로 우방(右坊)에 속하는 향악
 (鄉樂)·당악(唐樂)과 구별하여 좌방(左坊)에 속하는 음악을 가리키는 말을 하고 있다.
 백제 미마지가 일본에 전해졌는데, 오나라에서 배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나
 라가 어디냐? 가 나오는데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다. 하지만 일본 서기에 백제에서
 넘어왔다고 되어 있으니 백제 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박동진 판소리 국악의 가치와 전승

● 박동진의 국악활동⁸⁾

- 박동진은 1916년 7월 12일 충남 공주군 장기면 무릉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부친은 농
 사를 지었으나 조부는 줄광대였고, 숙부도 소리를 했다고 한다. 중학교를 다니던 중
 협률사 공연을 보고 판소리에 입문하기로 결심하고 18세에 충남 청양의 풍물패 상쇠
 였던 손병두에게 도막소리를 배웠으며, 이어 김창진에게 「심청가」를 배웠다고 한
 다.
- 21세에는 정정렬(1876. 5. 21.~1938. 3. 21.)에게 「춘향가」를 배웠고, 계속 박지홍의
 「흥보가」, 유성준의 「수궁가」, 조학진의 「적벽가」를 배웠다고 한다. 여러 선생
 을 전전하며 짧은 기간에 소리를 배운 만큼 다양한 소리제를 경험할 수는 있었으나,
 소리를 학습한 이력이 분명하지 않고 어느 바디도 완전한 전승이 되지 못하였다.
- 소리를 배운 뒤 일제 말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 무렵까지 혼란기에는 권번의
 소리선생과 여러 국극단을 전전하였고, 한국전쟁 기간에는 국민방위군 창극단에서 활
 약하기도 했으나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명창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8)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2520>

- 1962년 국립국악원에 근무하면서부터 생활이 안정되자 그는 판소리 수련에 매진하여 6년 뒤인 1968년 9월 30일 남산 국립국악고등학교 강당에서 「홍보가」를 5시간에 걸쳐 완창하였다. 광복 후에 판소리 완창은 1956~57년 임방울이 「수궁가」와 「적벽가」를 각각 2시간가량 부른 것이 유일한 기록이었다. 1930년대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도 판소리는 도막소리나 창극, 여성국극 형태로 공연되었다. 광복 직후 완창을 부를 수 있는 명창도 극히 적었고, 공식 무대에서 완창을 부르는 관례도 없었다. 5시간에 걸친 박동진의 「홍보가」 완창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전통 판소리 공연 형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를 무명의 소리꾼에서 판소리계의 중심인물로 서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 그때부터 박동진은 판소리 5바탕은 물론, 실전(失傳) 판소리의 복원과 창작 판소리까지 계속 완창을 발표하였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홍보가」(1968년, 5시간), 「춘향가」(1969년, 8시간), 「심청가」(1970년, 6시간), 「변강쇠타령」(1970년, 5시간), 「적벽가」(1971년, 7시간), 「수궁가」(1972년, 5시간), 「배비장타령」(1972년), 「성서 판소리(예수전)」(1972년), 「이순신장군일대기(충무공 이순신)」(1973년), 「숙영낭자전」(1974년), 「팔려간 요셉」(1975년), 「옹고집」(1977년). 이러한 완창은 지금까지 아무도 넘어서지 못하는 대기록이다.
- 박동진은 한 스승으로부터 완전한 바탕소리를 물려받지 못한 대신 여러 스승을 거치면서 다양한 판소리의 더늠과 소리 특징, 공연 현장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기존 5바탕을 새로 짜서 자신의 소리로 가꾸었고, 여러 더늠을 두루 수용하여 길어도 대폭 늘였다. 또한 「변강쇠타령」, 「배비장타령」, 「숙영낭자전」, 「옹고집전」 등 실전 판소리 사설에 새로 곡을 붙였다.
- 특히 주목할 것은 박동진의 「예수전」, 「충무공 이순신」 등 창작 판소리이다. 「예수전」은 주태익이 쓴 사설에 박동진이 곡을 붙인 것으로, 판소리의 새로운 소재와 영역을 개척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500회 이상 공연한 것으로 전한다. 「열사가」의 전통을 이은 「충무공 이순신」은 1960~70년대 ‘이순신 선양화 사업’과 맞물려 창작된 곡으로 전바탕이 약 9시간에 이르는 대작이며, 박동진의 창작 역량과 소리 기량이 집약된 작품이다.
- 박동진은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국립창극단장에 취임하였다. 박동진은 1970~80년대 판소리 명창으로는 가장 많은

공연을 하였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판소리계에 완창 관례를 이끌어내었다.

- 1998년에는 고향 공주의 생가 터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개관하였으며, 2003년 7월 8일 이곳에서 향년 87세로 작고했다. 박동진은 맑은 청구성 계통의 성음을 지녔으며, 스승의 소리를 판박이로 부르지 않고 자유로운 선율을 구사하였다.
- 그는 즉흥적으로 판을 짤 수 있는 당대 유일한 명창으로 꼽히며, 아니리와 재담에 능하여 대중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판소리의 반은 아니리’라는 말로 재담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피력하였다. 그의 소리에 대해 선율을 즉흥적으로 짜기 때문에 음악성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완창을 밥 먹듯이 하는 그의 소리 공력과 공연 능력은 당대 최고로 꼽히며, 조선조 광대놀음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 중요 녹음으로는 『박동진 애창곡집 판소리 다섯마당(1~5)』(1971, 5LP), 『충무공 이순신』(1973, 5LP), 『적벽가 삼고초려, 적벽대전』(문화재관리국, 1976), 『인간문화재 박동진 판소리 대전집』(SKC, 18CDs, 1988) 등 많은 음반과 공연실험 녹음이 남아있다.

● 박동진의 가치와 전승⁹⁾

- 박동진은 1980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1981년에 미국 일주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1982년에는 미국에서 《성서 판소리》를 발표하였다. 1985년 국립국악원 판소리 원로사범에 임명되었고, 1987년 국립국악원 지도위원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후진 양성에 힘쓰기 위해 공주로 내려와 전수관을 개관하는 한편, 여전히 공연 활동을 활발히 펼쳤고, 팔순이 넘은 나이에 완창과 장시간 연창을 감행하는 등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2003년, 공주 전수관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였고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 특히,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공주의 음악에서 민속예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 이러한 박동진 선생의 판소리를 전승하기 위하여 공주시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은 1998년 박동진명창의 소리를 잇

9) <https://namu.wiki/w/>

고 추진을 양성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건립되었다. 전수관의 주요 활동으로는 전문적인 소리꾼 배출을 위한 전수교육이 우선이다. 특히,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연수 교육이나 판소리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도 전수관의 중요한 활동이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각 대학의 어학당 외국인 판소리체험, 초·중·고·대학생 판소리체험, 종교단체 판소리체험학습, 각종 교육기관 및 기업체 판소리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전수관은 앞으로도 박동진명창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판소리의 활발한 전승과 대중화를 위한 활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또한, 매년 공주에서는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열린다. 2017년에는 공주시가 주최하고 박동진판소리선양회가 주관하는 제18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 간 공주문예회관과 국립공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렸다.
- 판소리 인재의 등용문인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준 높고 권위 있는 판소리 단일규모 대회이다. 특히, 한국 국악을 이끌어 갈 전국의 젊은 인재들이 대거 참여, 판소리와 고법 부문에서 명창부와 일반부, 신인부(비전공자), 학생부로 나눠 이틀 간 열띤 경연을 펼쳤다.
- 그리고, 대회전 13일 저녁에는 전야 행사로 공주문예회관에서 박동진 선생 14주기 추모음악회가 국내 최고의 명인·명창을 초청해 개최되어 박동진 선생을 추억하였다.
- 또한, 대회 부대행사로 공주 한옥마을 백제방에서는 판소리 체험과 전통공예체험이 펼쳐지며, 한옥마을 야외 특설무대에서는 14일 저녁 8시 '소리, 한옥 위에 내려앉다' 공연과 15일 저녁 8시 '한여름 밤의 푸리' 국악 공연이 진행되었다.

■ 공주시 음악 민속예술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및 네트워크 포럼 개최

-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악분야 선정은 국내에서는 통영시가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하마마츠에 이어 두번째이고, 세계에서는 스페인 세비야, 콩고 브라자빌, 콜롬비아 보고타, 이탈리아 볼로냐, 독일 만하임 등 10번째 도시로 통영이 지정되었다.
- 통영시의 사례로는 음악창의도시 선정을 위한 행정전담팀을 꾸려 민관이 함께하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 국·내외 관계자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2010년 8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에 착수한 이후 5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
- 통영시는 문화적 자산을 강조하며 음악적 국제 교류활동 등을 통해 도시발전의 원동력

이 된다는 내용을 어필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통영의 음악분야의 역사적 유산, 인적자원, 인프라 등 향후 발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내려 가입이 되었다고 한다.

- 세계적인 음악도시의 도시특징 사례는 다음과 같다.(2015년까지)
 - 세비야(스페인) : 인종언어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2006년)
 - 볼로냐(이탈리아) : 풍부한 음악적 전통소유(2006년)
 - 블랙고(영국)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2008년)
 - 겐트(벨기에) : 음악축제와 전문기관(2009년)
 - 보고타(콜롬비아) : 음악홍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2012년)
 - 브라자빌(콩고) : 음악의 다양성(2013년)
 - 하마마츠(일본) : 악기산업이 발달한 일본의 음악도시(2014년)
 - 하노버(독일) : 독일 합창단 중심도시(2014년)
 - 만하임(독일) : 다양한 음악공연이 있는 다문화 도시(2014년)
 - 애들레이드(호주) : 라이브음악의 도시(2015년)
 - 이다나 아 노바(포르투갈) : 지속가능성이 결합된 문화예술 축제(2015년)
 - 카토비체(폴란드) : 풍부한 음악인프라 보유(2015년)
 - 킹스턴(자메이카) : 레게음악 탄생지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 개최(2015년)
 - 킨샤사(콩고민주공화국) : 음악과 춤, 그리고 문화가 생명줄과 출구역할을 하는 도시(2015년)
 - 리버풀(영국) : 그룹 비틀즈 탄생지이며 다양한 음악축제와 음악공연장 보유(2015년)
 - 메데인(콜롬비아) :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 개최(2015년)
 - 살바도르(브라질) : 아프로-브라질리언 음악과 문화(2015년)
 - 바라나시(인도) : 음악과 도시가 공존(2015년)
- 공주시의 음악도시로서 자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¹⁰⁾.

10) <http://gongju.grandculture.net/Contents>

- 공주의 민속 음악이란 전통 사회로부터 전래되고 민중에 의해 전승된 음악을 모두 포함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과 목소리를 이용하는 노래를 모두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역사적인 면에서의 공주의 민속 음악을 찾아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교적 사회 구조는 민속 음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을 광대라고 천시하여 기록이나 유품을 통한 민속 음악의 역사를 찾아보기 매우 힘든 현실이다.
- 공주는 오래도록 충청남도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는 현재적 개념으로 도청 소재지의 역할을 천년 이상 해왔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중심지로 있었다는 것은 문화적 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우수한 문화가 모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화는 항상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주의 민속 음악은 매우 다양하며 깊이 있는 특성을 지닌다.
- 현대인들이 아쉬워하는 중고제 판소리의 본 고장이 공주라는 사실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공주가 배출해 낸 명창이 타 지역에 거주해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도 짐작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명창 이동백 외에는 신뢰할 만한 깊이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또한 1402년 이후 관찰사가 정주하여 관에서 육성했던 음악 분야의 공연 연주인들이 오래도록 거주했으리라는 분명한 사실조차 변변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주시 웅진동 현재의 선화당 터 주변에 재인들의 생활 근거지가 있었다는 정도 밖에는 알지 못한다.
- 공주에는 관과는 관계없이 활동한 재인 단체도 있었다. 계룡면 중장리와 탄천면 삼각리에 살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공연도 하고, 자체적인 판을 벌여 주민들과 함께 예술을 즐기기도 하였다 하나 역시 변변한 기록이 없고,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형태를 짐작할 뿐이다.
- 공주시의 음악도시로서 음악단체는 다음과 같다¹¹⁾.
 - 2008년 현재 공주시에 있는 음악 단체로는 성곡오페라단, 충남교향악단, 박동진판소리전수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음악 행사로는 청소년음악제,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11) <http://gongju.grandculture.net/Contents>

- 성곡오페라단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한다. 1991년 공주를 비롯한 충청남도 지역의 오페라 문화를 개척하여 우리나라 오페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남오페라단으로 설립되었다가 1994년 성곡오페라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 공주시·계룡시·대전시에서 「돈 조반니」를 공연하였고, 2008년 공주시·부여시·천안시 등에서 「춘희」를 공연하였다.
- 충남교향악단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다. 충남교향악단은 도립 교향악단으로 1991년 11월 15일 창단되었다. 2008년 현재 상임 지휘자는 박종혁, 이병헌, 장준근을 거쳐 김종덕이 맡고 있다. 매년 정기 연주회, 지역 순회 연주회, 특별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박동진판소리전수관/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 : 충청남도 공주시 무릉동에 위치한다. 1998년 11월 박동진의 업적을 기리고 후진을 양성하여 우리 전통의 소리인 판소리의 맥을 잇고자 건립되었다. 박동진판소리전수관에서는 판소리 다섯마당, 성서판소리, 단가, 남요 민요 등을 전수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판소리 교습과 박동진판소리전수관 판소리 체험이 있다.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기 위해 1997년 10월 개원하였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 양금, 대금, 단소, 피리, 풍물 등 9개 분야로 구성된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로 우리의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강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기획 및 초청 공연을 전개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공주시가 가지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 가지는 자원과 가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유적과 관련된 미마지 기악의 융성과 일본 전파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인정된 박동진 선생 판소리와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 다양한 공주시의 음악자원과 단체를 비롯한 현대적인 음악제와 음악축제와 음악관련 시설 및 공간 등
- 이를 공주시의 음악도시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조직을 구성하여 유네스코 음악 전통민속예술 도시로 지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연계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도 유치하여 개최를 추진한다.

■ 사업추진계획

- 공주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국립국악원을 공주시에 유치하여 건립 및 운영 추진 : 현재 서울, 부산, 남원, 진도 등
 - 공주시 음악창의도시 선정을 위한 행정전담팀 구성
 - 유네스코 음악 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 공주시 민관유네스코창의도시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음악인, 예술가, 교수 및 학계전문가, 등 20명 정도 위원회 구성
 - 유네스코 음악 민속예술부문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례 제정 및 제도적 준비
 -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국제세미나 및 국내학술대회 정기 개최
 - 공주지역 음악 관련 예술인과 민간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유네스코 음악 민속예술부문 창의도시 지정 행정절차 수행(3-4년내 목표)

2) 부여군 세계 역사도시연맹 세계 총회 및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유치 개최

■ 세계 역사도시연맹이란?

- 세계 역사도시연맹이란?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역사도시간의 교류를 통해 전통과 창조, 보존 및 역사도시간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이 연맹은 역사가 깊은 도시의 전통보존과 발전을 위해 1987년 설립되었으며, 각국의 역사도시를 매년 순회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복원을 논의하며, 역사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인 역사도시 전통과 창조, 보존 및 역사도시의 무궁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에서는 사회 경제적 발달에 밀려나 있던 문화 또는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문화의 중요성 및 문화유산의 보전이라는 관점은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각각의 도시들이 그들이 지닌 역사성이나 역사 속에 묻어있는 문화적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여기에 역사도시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세계 역사도시연맹 영문기구 명칭과 설립연혁 등(2011년)

기구명칭	◦ The League of Historical Cities		
설립목적	◦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역사도시간의 교류를 통해 전통과 창조, 보존 및 역사도시간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		
설립연혁	◦ 1987.11.18 : 일본 교토에서 창립, 교토선언문 선언 ◦ 2005. 10. 20 제9회 세계대회 경주 개최 ◦ 2010년 제12회 역사도시 세계대회 일본 나라 시 개최		
회 원	◦ 92개 도시	회 비	\$100(US)
회의주기	◦ 세계 대회 : 2년 주기 ◦ 집행부 회의 : 1년 주기		
주요활동	◦ 역사도시간의 공동유대강화와 교류를 위한 조직결성으로 회의개최 기반 확고화 ◦ 역사도시가 직면한 과제인 역사도시 전통과 창조, 보존과 발전계승, 고도 재현 도모를 위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 역사도시 발전		
조 직	◦ 회장 - 다이사쿠 카도카와 교토시장 (회장도시이므로 연임) ◦ 이사회 ◦ 사무국 : 일본 교토시청 주재 (국제교류 협력실)	회장 단	◦ 세계 회장(1) -일본 교토시장 ◦ 이사회(7)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장, 중국 시안시장, 호주 벨러랫 시장, 경주시장, 이란 이스파한 시장, 터키 코냐 시장, 우크라이나 오데사 시장
연 락 처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 CITY OF KYOTO Teramachi-Oike, Nakagyo-ku, Kyoto City, Japan 604-8571 Phone:+81-75-222-3072 Facsimile:+81-75-222-3055 e-mail: lhcs@city.kyoto.jp Homepage: www.city.kyoto.jp/somu/kokusai/lhcs/		
특이사항	◦ 국내 가입도시 (경주, 안동, 공주, 부여) ◦ 1994. 북한 개성 시 가입		

■ 국내 세계 역사도시연맹 가입 및 세계총회의 개최현황

- 2003년까지 세계역사도시연맹에는 경주시가 국내에서 가입되었고, 북한은 개성, 일본 교토, 중국 시안, 난징, 미국 보스턴,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 이스라엘 예루살렘, 스위스 취리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49개국 6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었다.
- 2년마다 이사회를 갖는 세계역사도시연맹에는 2004년에 안동시를 비롯하여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비종, 중국 정저우시의 4개도시가 가입되어 이에 따라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는 49개국 65개 도시로 늘어났다.
- 충남 부여군은 2006년 호주 벨리랏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에서 회원도시로 가입되었고, 2008년에는 공주시가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에 정식 가입되었다. 이후 세계역사도시 연맹 총회에서 2010세계 대백제전의 홍보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14년에는 경기 수원시가 세계역사도시연맹(The League of Historical Cities)에 정식 가입해 102번째 도시가 됐다. 현재 연맹에는 의장도시인 일본 교토를 비롯해 프랑스 파리, 중국 난징,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위스 제네바 등 61개국 102개 도시가 가입해 10년전 보다 2배로 증가하였다. 수원시 입으로 국내에는 경주, 안동, 부여, 공주, 수원시 등 5개 도시가 연맹에 가입돼 있다.
- 2004년에는 경주에서 세계역사도시 연맹 이사회가 경주에서 개최되어 일본 교토시, 중국 시안시, 오스트리아 빈시, 경주시 등 세계역사도시 연맹이사도시(의장 도시:일본 교토시) 4개국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2005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9차 세계역사도시연맹총회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였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회계결산 및 사업보고, 역사도시 연맹 가입희망도시 심사 및 확정, 2005년 총회 주제 및 부제설명, 총회 일정 안내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 또한, 경주시는 2005년 제9차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가 역대 어느 총회보다 많은 회원도시들이 참가하여 개최하였고, “2005년 총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총회 안내 홍보물제작 등을 통한 참가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해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었다.

■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개최 사례

- 세계유산도시기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는 도시 간의 협의체이다. 경주시는 2017년 경주에서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개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주시는 2017년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금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총회 준비상황 보고와 함께 경주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적극 홍보하였다.
-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OWHC)는 금년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4일간 경주 하이코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이란 주제로 전 세계 100여개 도시의 시장단 및 전문가 등 1,500여명이 참여한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는 전 세계 국가단위 대표단과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회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관련 현안을 심의하고 각종 후속조치와 유산목록 업데이트 등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이다.
- 경주시는 금년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세계총회 홍보를 위해 전시부스를 설치했으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과정에 총회 일정 소개와 주제발표, 하이코 회의시설, 주변의 숙박시설, 역사관광유적지 소개 등 맞춤형 홍보 자료를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다.
- 그리고, 총회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신라의 별이 빛나는 밤에(Starry night of Silla)’ 경주 홍보 카테일 리셉션을 열었다. 이날 사물놀이와 만파식적, 한국무용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으로 경주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 사비백제 부여의 세계총회 개최여건 분석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역사도시연맹의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0여개도시 400여명의 참석자와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00여개도시의 1,500여명의 참석자를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과 회의장, 연회장 및 음식점 등의 기반 시설과 공연문화시설, 관광코스 등의 부대행사가 갖추어져야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공주시도 세계 역사도시연맹의 회원국이면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시이기는 하나 관광기반시설이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아 부여군을 대상으로 개최여건을 분석하였다.

- 부여군의 숙박시설과 회의장, 연회장이 갖추어진 시설로는 부여롯데리조트이다. 롯데리조트 부여는 2010년 9월 2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에 개관하였다. 리조트 내의 콘도미니엄은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객실 322개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 세부적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331만㎡ 대지 위에 들어선 롯데부여리조트는 문화와 역사체험, 휴식과 휴양, 스포츠와 놀이 등 가족 단위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테마리조트이다.
- 롯데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은 약 3만 2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이뤄져 총 32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객실은 VIP를 위한 럭셔리룸(14실), 해외관광객 및 소규모 고객을 위한 디럭스룸(68실), 가족단위 고객을 위한 패밀리룸(84실)과 스위트룸(156실)으로 구성된다. 부대시설로는 인공파도풀장과 스파 등을 갖춘 약 4천㎡ 규모의 실내 아쿠아폴, 4개의 연회장, 최첨단 설비의 세미나실, 330석 규모의 레스토랑 및 카페테리아가 들어섰다. 비즈니스센터, 셀프 코인 세탁실, 아이들을 위한 키즈 클럽도 갖추어져 있다.
- 기존 부여 및 인근 공주지역에 잔존하는 백제유적지에 더하여 충청남도가 조성한 역사재현촌과 백제역사문화관이 연계된 백제역사문화관광단지가 있다.
- 또한, 백마강 친수구역내 체험형 휴양레저타운과 6성급 호텔 유치를 통한 MICE 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세계 역사도시연맹 세계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부여 세계 역사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

- 국내에서는 2005년에 경주에서 국내 5개 세계역사도시 연맹 세계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백제문화권인 부여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대백전 개최시기(2020년경)를 맞추어 목표를 부여 세계역사도시 연맹 세계총회를 유치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 사업추진계획

- 국내 세계 역사도시연맹도시 5개 도시 및 충남도와 공주시·부여군 사전협의
- 세계역사도시연맹 세계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여건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 2018년 세계 역사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한국 유치시기 및 유치도시 제안

- 세계역사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지 선정 및 사업 추진 : 세계유산 대백제전 개최시기

3) 공주·부여 도심과 관광지내 숙박·음식·쇼핑 관광기반시설 확충

■ 공주·부여 관광기반 확충의 필요성

- 공주·부여의 백제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후 2015년 관광객수는 공주시는 270만여명, 부여군은 196만여명이 방문하여 이들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편익시설의 제공이 필요하다.
- 특히, 부여군과 공주시에 세계 역사도시연맹 세계총회와,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개최하기 위해서는 숙박·음식·쇼핑등의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공주·부여 관광기반 여건분석과 과제

- 공주·부여의 관광기반시설로 관광단지는 부여의 백제문화관광단지가 부여군 규암면에 2014년 12. 30일 1,541km²가 지정되어 백제문화단지주변에 부여롯데리조트와 아울렛이 관광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 공주·부여의 지정관광지는 고틀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화 관광지 등 4개소이며, 부여군은 구드래와 서동요관광지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공주·부여 관광지 지정현황(2016년)

시군	관광지명	위치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		주요자원	추진상황
			지정일 (변경일)	면적(㎡)	승인일 (변경승인)	사업기간		
공주	곰나루	웅진동	1987.7.24	139,000	1987.11.7 (1999.6.7)	1987~2007	고마나루	조성완료
	마곡사	사곡면 운암리	1993.11.9	125,861	1994.3.30 (2014.1.7)	1992~2017	마곡사	민자유치
	마곡온천 (사업시행: 조합)	사곡면 가교리	1996.9.16	621,592	1998.9.1 (2012.12.31)	1999~2016	마곡사, 온천	사업중단
	공주문화	웅진동 봉정동	1996.10.24	1,029,179	2007.9.27 (2010.12.21)	1997~2017	금강, 백제역사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중
부여	구드래	부여읍 구교리	1969.01.21	148,515	1971.07.15	1984~2000	부소산, 낙화암	조성완료
	서동요	충화면 가화리	2008.11.20	174,508	2008.11.20 (2011.12.29)	2010~2013	서동요세트장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중

- 공주·부여에 관광호텔은 공주시에 2개소, 부여군에 1개소가 있으나 일반 대중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제적 행사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는 롯데부여리조트(주) 콘도미니엄이 322실을 갖추고 있다.

공주·부여 호텔과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현황(2016년)

시군	등급	호텔명	객 실 수					소재지/홈페이지주소
			계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	한실	
공주		금강관광호텔	49	18	28	2	1	공주시 전막2길 16-11 www.hotel-kumkang.com
		호텔홀리데이계룡산	53	29	0	24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61
부여	2급	백제관광호텔	40	0	19	1	20	부여읍 북포로 108 www.bchotel.co.kr

시군	콘도명	객 실 수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영업시작 (변경 등)
		계	66㎡이하	66~132㎡	132㎡이상			
부여	롯데부여리조트 (주)콘도미니엄	322	68	240	14	www.lottebuyeoresort.com	939-1011	2010.9.2

- 공주·부여에 충남도지정 외국인 편의식당업은 다음과 같다.
 - 공주시(8개소) : 대가문, 새이학가든, 고마나루돌쌈밥, 예가, 청운본가, 연기숯불갈비, 게이프타운, 희가
 - 부여군(10개소) : 구드래돌쌈밥, 백제의집, (주)백제관광호텔, 하늘채, 솔내음, 남태평양, 나루터식당, 향우정, 구드래향토정, 메밀꽃필무렵
- 공주·부여에 한옥체험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공주시(2개소) : 한옥마을, (주)계룡산전통한옥체험마을 솔향
 - 부여군(2개소) : 백제관(민칠식가옥), 전통한옥펜션
- 공주·부여에 골프장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공주시(3개소) : 프린세스골프클럽, 골드리버CC, 계룡산골프클럽
 - 부여군(2개소) : 백제 CC, (주)호텔롯데스카이힐부여CC

- 이상과 같이 공주·부여의 관광기반시설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회의시설 및 전통체험시설, 골프장이 갖추어져 있으나 국제적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여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 공부·부여 관광기반시설(숙박·음식·쇼핑 등) 확충방안

- 기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과 활용성 제고 및 리모델링 추진
 - － 공주와 부여에는 기존의 유스호스텔과 여관 및 모텔 등의 숙박시설이 300여개소 이상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과 관광서비스 교육사업 추진
- 지정관광단지 및 관광지, 수변관광지구내 고급관광호텔 유치
 - － 공주시에서 추진중인 곰나루관광지와 공주문화관광지 등 2개소의 지정관광지내에 고급호텔 총 600여 객실규모와 연회장 및 회의시설 등의 호텔 민자사업 유치를 성공 유치
 - － 부여군의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내에 5성급 특급호텔 조성사업에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의 성공적 유치
- 한옥숙박촌 등 전통숙박시설지구 및 숙박시설의 확충
 - － 공주시와 부여군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한옥숙박 및 전통숙박시설지구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시가지내 게스트하우스 및 에어비엔비 등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
 - － 공주시와 부여군의 중저가 숙박시설과 골목상권지역내 시가지 게스트하우스 거리조성과 지역의 민박과 펜션 등과 연계한 에어비엔비 중저가형 숙박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 사업추진방안

- 기존 관광시설의 리모델링사업과 지정관광지의 관광호텔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양한 연계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추진
- 한옥숙박촌 등 전통숙박시설과 시가지내 게스트하우스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사업은 공주·부여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

4) 백제왕도 유적복원 및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기 실현

■ 백제유적복원과 광역관광단지 조기 실현의 필요성

- 공주·부여 백제문화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가치제고와 명소화가 필요하다.
- 특히, 신청부의 공약에서 백제왕도유적복원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백제유적복원과 광역관광단지 사업계획¹²⁾

● 세계유산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사업개요

- 위 치 : 공주, 부여, 익산
- 사업량 : 핵심유적 18개소(공주 6, 부여 12)
 - ※ 익산 8 포함 총 26개소
 - ※ 공주 : 관청(공산성), 부여 : 사찰(왕흥사), 익산 : 왕궁(왕궁리 유적),
- 총사업비 : 10,370억원(국7,259, 지3,111) ※ 익산 포함 총사업비 14,027억원
- 사업기간 : 2017 ~ 2038년
- 추진과제 : 최소한의 복원재현, 백제문화 가시화, 유적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추진상황
 - 2015. 03.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발족 및 운영
 - 2015. 07.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2016. 10. : 백제왕도 보존·관리사업 시행계획 용역 착수
 - ▶ 공주 : 국토연구원(2017.10월까지) - 공산성 관청복원
 - ▶ 부여 : 백제고도문화재단(2018.7월까지) - 부여 왕흥사지 복원
 - 2017. 하반기 : 백제왕도 추진단 구성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요

12) 충남도청 내부자료(2017)에서 요약정리

- 위 치 : 충남, 세종, 전북, 내륙지역(19개 시군)
- 사 업 량 : 총 40건(관광자원개발 29건, 진흥사업 11건)

※ 공주·부여 사업 : 공주 백제문화 이음길, 부여 백제역사 너울옛길

사 업 명	총 사업비(억원)				2017년 (국비)	2018년 (국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7개 시군 11개 사업	2,129	949	1,146	34	47.5	52
부여 백제역사 너울옛길	141	71	71		2.5	5
공주 백제문화 이음길	139	58	81		-	

- 총사업비 : 6,167억원(국 2,627, 지 3,455, 민자 85)
- ※ 충남 7개 시군 11개사업 : 2,129억원(국비 949, 지방비 1,146, 민자 34)
- 사업기간 : 2017 ~ 2026(10년간)
- 사업추진상황
 - '15. 05.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문체부)
 - '16. 12. : '17년도 정부예산 반영(47.5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 '17.1.~현재 : '17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설계 등 추진(5건)

■ 백제유적복원과 광역관광단지 사업계획 조기실현 방안

- 백제유적 복원 사업 대한 이용과 활용성 제고 및 리모델링 추진
 - 백제왕도 추진단 설립 및 운영 : 충남도, 공부·부여군, 민간 및 전문가 참여 등
 - 국비의 안정적 확보 : 정치권 및 지자체 정기협력회의 개최, 지역주민단체 활동강화 및 주민토론회 등 지역여론형성 정기행사 개최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
 - 광역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해당시·군 T/F팀 구성 및 운영, 매년 서부내륙권 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 모니터링회의 개최
 - 국비확보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및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연계 추진

5) 공주부여와 세종 등 광역시티투어와 철도여행상품 발굴 및 운영사업

■ 공주·부여 도시관광과 여행상품 활성화의 필요성

-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과 각 도시의 역사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주·부여 등 백제역사유적과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시티투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특히, KTX공주역과 연계된 철도여행상품과 공주·부여·세종을 중심으로 인접한 대전역과 청주공항 등을 연결하는 광역시티투어 상품의 개발과 운영도 이루어져야 한다.

■ 공주·부여 시티투어 및 철도여행상품 운영현황과 과제

- 공주시의 시티투어는 행복공주 시티투어라는 주제를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6~8월에는 청벽수상레저에서 수상 레저 체험이, 9~10월에는 공주 특산물인 밤줍기 체험을 진행하여 차별화하고 있다.

공주 시티투어 현황

대분류	개요	운영기간	코스	이용요금
공주시	행복공주 시티투어	매주 토	공주역→공주시청 집결→계룡산 도예촌 체험→중식(백미고을, 자유식)→공산성→송산리고분군→국립공주박물관→궁도체험→알밤한우홍보→공주시청→공주역 해산	15,000 (어른기준)
	석장리 축제코스 (5.3~5.6)	5.3~5.6	공주역→공주시청 집결→공산성→중식(군석기축제장)→석장리박물관→석장리축제체험→알밤한우홍보→공주시청→공주역 해산	7,000원 (어른기준)

편의제공 : 관광가이드 탑승(가이드 1, 해설사 1): 관광지 해설 및 안내

관광홍보물 제공 : 관광홍보용 책자, 리플렛, 안내지도 등



- 공주역과 연계하여 운행되는 있는 KTX철도여행상품은 공주와 부여 등의 코스로 혼합형과 각 도시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공주역과 연계한 당일 여행상품은 공주코스, 공주·부여 코스, 공주·계룡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판매·운영되고 있으며, 코스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공주역 연계 여행상품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운행코스	공주코스	용산역-공주역-공산성-무령왕릉-마곡사관광지구/자유종식-마곡사 솔바람길-공주국립박물관&공주한옥마을&공예품전시관-백미고을/자유석식-공주역출발-용산역
	공주체험코스	용산역-공주역-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한옥마을-백미고을 음식특화거리-공산성-밤양갱 만들기 체험/알밤줍기체험-공주역-용산역
	공주부여코스	(주중코스) 용산역-공주역-석장리박물관-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백미고을-정림사지-부소산성-궁남지-구드래음식특화거리-공주역-용산역 (주말코스 A) 용산역-공주역-부소산성-구드래음식특화거리-궁남지-정림사지-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산성시장-공주역-용산역 (주말코스 B) 용산역-공주역-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백미고을-부소산성-궁남지-정림사지-부여중앙시장-공주역-용산역
	부여코스	용산역-공주역-부소산성-백미강유람선-구드래 음식특화거리-정림사지-궁남지-부여기와마을-공주역-용산역
	부여농촌체험코스	용산역-공주역-부소산성-송죽녹색체험마을-궁남지-정림사지(주말x)-능산리고분군-부여중앙시장(주말x)-공주역-용산역

자료 : Korail

- KTX타고 떠나는 다시 깨어나는 백제! 공주 백제역사탐방(공주코스)
 - 출발일자 : 5월~12월
 - 상품가격 : 성인 76,000원 / 소인 64,000원
 - 포함내역 : 왕복 열차비(KTX), 연계 차량비, 입장료
 - 불포함내역 : 전 일정 식사비, 여행자보험, 기타 개인비용
 - 최소행사인원 : 10명
 - 여행사 : 코레일관광개발
 - 주요 코스 : 용산역-공주역-공산성-무령왕릉-마곡사관광지구/자유종식-마곡사 솔바람길-무령왕릉-백미고을/자유석식-공주역출발-용산역



공주역



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백미고을



공주역

- KTX타고 떠나는 다시 깨어나는 백제! 부여&공주 백제역사탐방(공주코스)
 - 출발일자 : 05월 01일부터 매주 화~일요일 출발 (최소출발인원 6명)

- 상품가격 : 화~목 출발시 성인 58,000원 / 소인 47,000원
금, 토, 일, 공휴일 출발시 성인 63,000원 / 소인 47,000원
- 포함내역 : 왕복 KTX 열차비, 연계 차량비,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내역 : 식사비, 여행자보험, 기타 개인경비
- 여행사 : (주)여행공방
- 주요 코스 : (A코스) 용산역-공주역-부여 부소산성/백마강유람선/고란사-부여 구드래 음식특화거리/자유중식-정림사지-공주 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공주역-용산역



(B코스) 용산역-공주역-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공주 백미고을/자유중식-부여 부소산성/백마강유람선/고란사-정림사지-공주역-용산역



- KTX타고 떠나는 계룡대 나라사랑 병영체험&공주백제문화역사탐방
 - 출발일 : 7월 1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출발 (최소출발인원 15명)
 - 상품가격 : 성인 76,000원 / 소인 64,000원
 - 포함내역 : 왕복KTX열차비, 연계차량비,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비
 - 불포함내역 : 식사비, 여행자보험, 기타 개인경비
 - 여행사 : (주)여행공방
 - 주요 코스 : 용산역-공주역-계룡대-계룡대 소개 및 안보교육-영내 버스투어(주초석, 무기전시장, 통일탑)-순환식 병영체험(페이트볼건 및 BB탄 사격, 군복 착용체험, 나라사랑 퀴즈대회)-병영식사체험-공주 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공주 백미고을/자유식-공주역



● 공주역 연계 여행 주요 코스(공주시)

- 공주시에서는 주요 관광자원(계룡산, 마곡사, 태화산 등)과 공주역을 연계하여 14개의 여행코스를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코스별 전체 거리 및 이동시간을 표기하여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음
- 우산봉 산행 : 계룡산 동쪽지맥을 따라
 - 전체 거리 및 이동시간 : 전체 거리 및 이동시간 : 대중교통 (78.64km, 4시간 15분), 도보 산행 (7.17km, 3시간 10분)
 - 주요 코스



KTX공주역 - 두리봉 - 487봉 - 우산봉 - 송곡리정류장 - KTX공주역

- 월성산 산행 : 도시 숲, 걷기 좋은 산
 - 전체 거리 및 이동시간 : 대중교통 (21.03km, 1시간 11분), 도보 산행 (1.4km, 1시간)
 - 주요 코스



KTX공주역 - 487봉 - 월성산 - 봉화대 - KTX공주역

- 태화산 산행 : 적송림 무성한 걷기 좋은 산행
 - 전체 거리 및 이동시간 : 전체 거리 및 이동시간 : 대중교통 (92.66km, 4시간 40분), 도보 산행 (8.48km, 2시간 41분)
 - 주요 코스



KTX공주역 - 마곡사 - 천연송림욕장 - 활인봉 - 생골마을 - KTX공주역

- 계룡산 산행 : 동학사에서 동학사까지
 - 전체 거리 및 이동시간 : 전체 거리 및 이동시간 : 대중교통 (92.66km, 4시간 40분), 도보 산행 (8.48km, 2시간 41분)
 - 주요 코스



KTX공주역 - 동학사 - 은선폭포 - 관음봉 - 남매탑 - KTX공주역

- 과제

- 공주·부여지역의 세계유산 등재지역과 주변의 광역교통시설과 교통망뿐만 아니라 다야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와 시티투어상품의 운영이 필요함
- 공주·부여 등의 충남 백제문화권 도시와 세종시 등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방문하고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통합적 시티투어코스와 상품의 개발과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함
- 공주와 부여에서도 내외국인과 수학여행 등의 관광객 등을 위한 백제문화와 근대문화, 산행 및 농촌체험 등을 연계하는 기존 시티투어를 활성화 해야함.

■ 공주·부여 광역시티투어 및 철도여행상품 활성화 방안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문화권 광역 시티투어코스의 발굴과 상품의 운영

- 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백제유적과 주변의 충남의 타 시·군,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의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시티투어 상품을 발굴하여 운영

- KTX공주역 등 철도역 연계 테마철도여행상품의 활성화 및 신규 상품의 운영

- KTX공주역을 백제왕도테마역으로 조성하여 가족단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주역 3색(色) 테마 철도여행상품으로 백제세계유산열차 등을 운영

- 공주·부여·세종 백제·금강테마 오픈탑 2층 투어버스의 운영

- 공주·부여의 백제유적과 세종의 정부종합청사, 대통령기록관, 세종호수공원 등과 연계하면서 금강변 경관과 테마자원을 연결하는 오픈탑 2층 투어버스 운영

- 공주·부여 등 도시별 계절 및 지역축제 연계형 시티투어상품의 발굴 및 운영.

- 공주·부여의 관광자원 특성과 테마뿐만 아니라 계절적 관광객 방문수요 및 백제문화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시티투어상품을 지역별로 발굴하여 운영

■ 사업추진방안

- 광역시티투어 상품의 발굴 운영은 충남과 대전·세종·충북 관광협의회 사업으로 추진

- KTX공주 철도여행상품은 충남도, 공주시 철도공사 등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공주·부여·세종 오픈탑 투어버스 운영은 행복생활권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

- 공주·부여의 지역별 시티투어상품은 도시별 개별시티투어와 축제연계사업으로 추진

6)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권 통합패스 라인구축과 운영

■ 관광패스의 소개와 필요성

- 관광패스라인이란 지역의 교통패스와 관광상품을 통합된 결제기능으로 엮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 관광패스라인을 통해 관광정보 취득이 용이하고, 관광시설(음식점, 쇼핑, 숙박시설)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관광패스라인 도입 후 얻을 수 있는 성과로 다수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으며, 한 지역의 밀집되어있는 관광객들을 패스라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 관광패스라인은 관광시설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관광패스라인 개념도



■ 국내 투어패스 운영사례 분석

- 백제권 관광패스라인 구축을 위해 국내에 도입된 코리아패스, Kpass, Mpass, 부산 관광카드, 제주패스, KR pass, 제주도패스, 브이패스 등의 8가지 관광패스를 분석하였다.

국내사례 투어패스 종합분석

구분	코리아패스	Kpass	Mpass	부산관광카드
사업주체	한국관광공사	(주)프리미엄패스 인터네셔널	한국스마트카드	부산시/롯데카드
결제방법	선불형	선불형	선불형	선불카드 성격의 후불 정산형
권종	5, 10, 30, 50만원권	5, 10, 30, 50만원권	1, 2, 3, 5, 7일권	5천원, 1만원, 10만원, 30만 원권 (교통겸용, 교통기능 미 탑재형)
교통기능	선택형	선택형	기본장착	선택형
가격	5, 10, 30, 50만원권	5, 10, 30, 50만원권	1일 : 10,000	5천원, 1만원, 10만원, 30만 원권 ※교통겸용 카드는 교통 카드칩 비용 3천원 별도 부과
			2일 : 18,000	
차감방법	사용액 차감	사용액 차감	교통 외 사용액 차감	카드 반납시 사용금액만 결제(청구)되며, 80%이 상 사용한 경우 잔액 취 소 처리
이용자	외국인 여행객	외국인 여행객	외국인 여행객	모든 이용자
형태	카드형	카드형	카드형	카드형
할인 혜택	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지하철, 버스, 택시	서울지하철,버스
	관광	○	○	○
	쇼핑	○	○	×
	숙박	○	○	×
	식음	○	○	×
어플리 케이션	×	×	×	×
기타	실적 저조	맞춤형 여행코스 제공	1일 20회 최대	부산관광카드 가맹점 쿠폰 제공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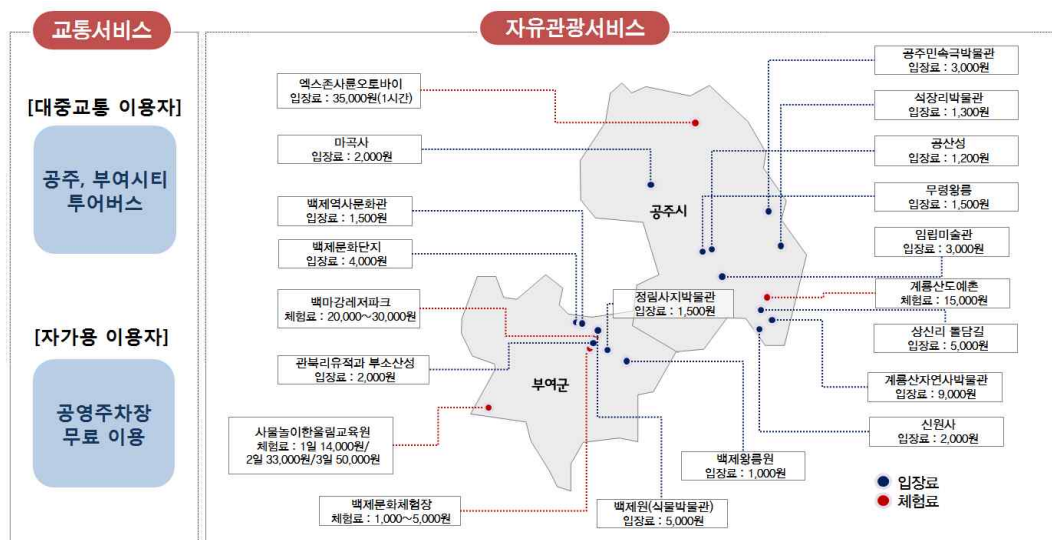
구분		제주패스	KRpass(코레일)	제주도패스	제주브이패스
사업주체		(주)제주비앤에프	코레일	이제주	(주)해우리
결제방법		선불형	선불형	후불형	선불형/후불형
권종		해당없음	1, 3, 5, 7, 10일권	해당없음	선택형 자유이용권, 패키지권, 후불제이용권
교통기능		기본장착	기본장착	없음	없음
가격		카드 3,000	1일 : 66,900	-	7,200~39,900
			3일 : 93,100		
차감방법		사용액 사전충전	차감없음 (자유이용)	차감없음	차감없음 (선택형자유이용)
이용자		모든 이용자	외국인 여행객	모든 이용자	모든 이용자
형태		카드형	종이형	모바일 쿠폰	모바일 쿠폰
할인혜택	교통	○	모든 기차	X	X
	관광	○	○	○	○
	쇼핑	○	X	X	X
	숙박	○	X	X	X
	식음	○	X	○	○
어플리케이션		○(추후)	X	X	○
기타		-	부가혜택 적음	-	-

자료 : 각 사례 홈페이지

백제투어패스 여건분석과 추진방향

- 공주·부여의 교통서비스는 자가용 및 대중교통이외에 공주·부여의 시티투어 이용이 가능하며, 자가용이용자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가능하다.
- 공주·부여의 유료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역사문화관광자원과 박물관 등의 입장료, 체험관광시설 및 탑승유원시설에 대한 체험료 및 이용료 등이 있다.

공주·부여 관광패스 여건



- 공주·부여의 백제투어패스는 대중교통이용객과 자가용이용객을 구분한 시티투어 등의 교통서비스 제공하여 구분하고, 자유이용서비스는 공주시와 부여군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료관광자원과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

백제투어패스 사업화계획

- 백제투어패스는 “세계유산백제, 투어패스 한 장이면 OK!” 라는 슬로건으로 「백제역사 투어패스」의 명칭으로 교통서비스, 관광서비스, 특별할일서비 등으로 구분하고, 선불형의 자유이용권으로 추진한다.
- 백제투어패스의 인프라 구성은 관광과 ICT 기술이 결합한 4차산업의 융합형태로 관광패스 서버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광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백제역사관광패스 개념도

세계유산 백제, 투어패스 한 장이면 OK!
구석구석 백제역사의 참 맛을 느껴보세요!

세계 유산, 백제! 구석구석 느껴보세요!

백제역사투어패스 History Tourpass



교통서비스

(자가용이용객)
공영주차장 무료
(대중교통이용객)
시티투어버스 무료



관광서비스

제휴 관광지
무제한 무료 이용



특별할인
서비스

맛집, 관광지 입장
체험프로그램 등
특별 할인 혜택

이용(결제) 방식

자유이용권형(선불)

이용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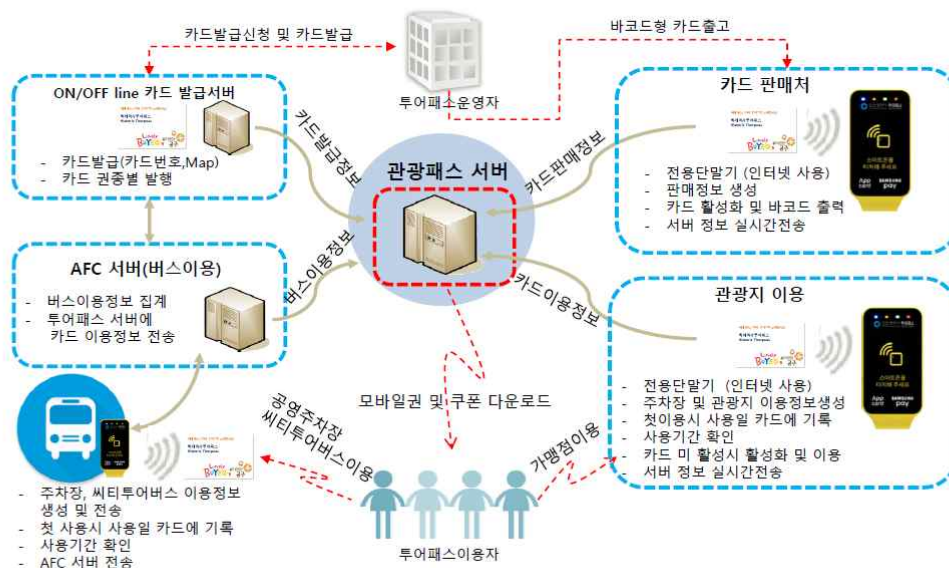
카드형 / 모바일형

패스권종

1일권, 2일권 / 교통포함형, 미포함형

투어패스 인프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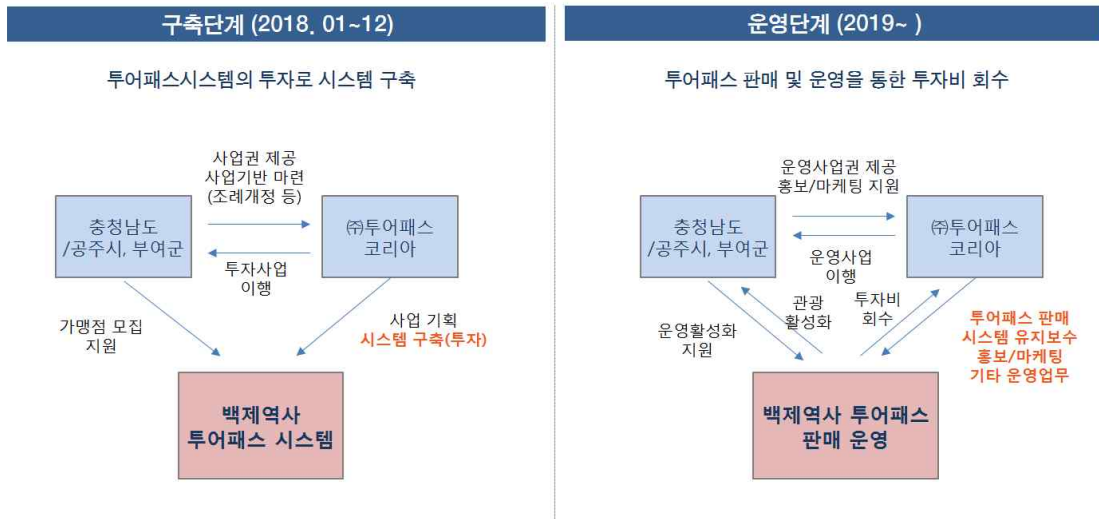
관광과 ICT기술이 결합한 4차 융합산업



■ 사업추진방안

- 백제투어패스는 공주시와 부여군의 사업권 제공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의한 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투어패스 사업추진 단계별 내용



참 고 자 료

- 김지선·이훈(2009), 문화유산관광으로서 고궁관광평가, 관광·레저연구, 22(5).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명자(2016), '부여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 연구', 충남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연구논문
- 박창완(2016),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 도시 관광발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현(2015), '유네스코 세계유산 PR실태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진 외(2011),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고인들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분석. 상품학연구 제29권 2호(2011년 3월)
- 왕뢰(2013), "문화유산관광지 관광방문동기 및 만족도 차이연구", 수원대학교 호텔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2014), "문화유산관광지 체험마케팅이 방문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명숙(2005),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 경주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6(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금강권 관광 공동상품개발(안)
- 허 권(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충청남도(2017), KTX공주 테마역 조성계획(안)
- 충청남도(2017), 신정부 대선공약사업 추진계획 내부자료
- 충청남도(2017), 2016 충남관광기본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https://ko.wikipedia.org/wiki/>

<http://culturenomics.tistory.com/355>

[http://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dictionaryView.](http://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dictionaryView)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2520>

<https://namu.wiki/w/>

<http://gongju.grandculture.net/Contents>